



월 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June
2012. 6

ISSUE 유로존 재정위기 항방과 충남 경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환경 분석

기업탐방 농업벤처기업의 모델 (주)한국도라지

경제동향 경기, 산업활동, 소비 및 물가, 수출입, 고용, 금융, 건설 및 부동산

경제일지

경제지표



충청남도 **CDI** 충남발전연구원

2012년 6월호

발 행 인 안희정 · 박진도

편집위원장 남궁영 · 성태규

편집위원 맹부영, 임재영

집필진 총괄 임형빈

경제동향 백운성, 신동호, 김양중, 홍성호, 김윤아, 이윤경

경제일지 김현철, 전미영, 김범수

외부집필진 김영삼(포스코경영연구소)

발행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연락처 (041) 840-1114, 1165 팩스(041) 840-1129

월간 충남경제의 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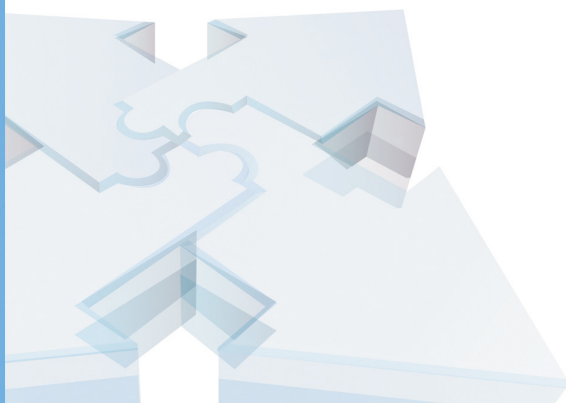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ISSUE	유로존 재정위기 향방과 충남 경제	3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환경 분석	11
기업탐방	농업벤처기업의 모델 (주)한국도라지	21
경제동향	충남경제동향 (요약)	29
	1. 경기	5. 고용
	2. 산업활동	6. 금융
	3. 소비 · 물가	7. 건설 · 부동산
	4. 수출입	
	해외경제동향 (요약)	48
	1. 미국	3. 일본
	2. 중국	4. 유로지역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55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63
	2. 충남 주요경제지표	65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67
부록	1.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83
	2.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87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유로존 재정위기 향방과 충남 경제

김 영 삼 |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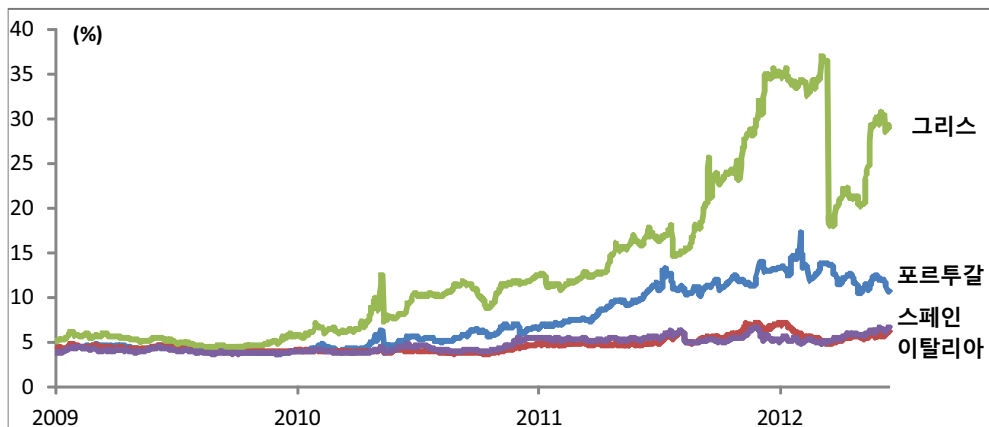
1.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 리스크 재부상

(1) 그리스의 5월 총선 이후 유로존 탈퇴(Grexit) 우려

지난 5월 6일 그리스의 총선에서 급진좌파 등 긴축 반대파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립 정부의 구성이 실패를 하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의 긴축 철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리스 국채(10년물) 금리는 최근 30%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6월 17일 시행된 2차 총선에서 다행히 신민당 등 긴축 찬성파가 승리하여 단기적으로 그리스 리스크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그리스의 취약한 재정여건 및 경기 침체를 볼 때 중장기적으로 긴축 약속이 온건히 이행되기는 어렵다. 만약 그리스가 EU·ECB·IMF(트로이카)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약속한 긴축이 중단될 경우 그리스 국채의 디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유로존을 탈퇴할 것으로 예견된다. 실제 금융시장 및 주요 전문가들은 2~3년 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국 국채(10년물)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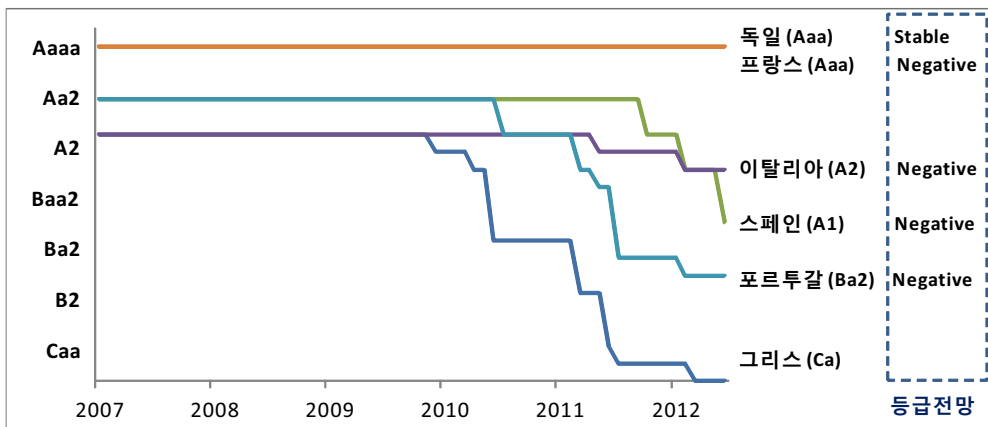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2) 스페인의 구제금융 요청, 위기의 유로존 중심국 전이 가능성

가계부채 등 은행권 부실 우려가 지속 제기되던 스페인은 결국 6월 9일 EU에 은행 부문에 대한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로써 유로존 재정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까지 4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전에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유로존 내 경제 비중이 미미한 주변국인 반면, 이번 구제금융을 요청한 스페인의 경우 유로존 내 4위 경제대국이다.

금번 스페인의 구제금융 대상이 은행 부문에 국한되지만, 국가 재정을 통해 스페인 자체적으로는 은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기존 구제대상 국가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요청 이후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Baa3' 3단계나 강등시켰으며, 최근 스페인의 국채(10년) 금리가 위기의 임계치로 보는 7%를 넘어서기도 하는 금융시장에서 스페인 자산의 신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로존 주요국 신용등급(무디스) 추이



자료 :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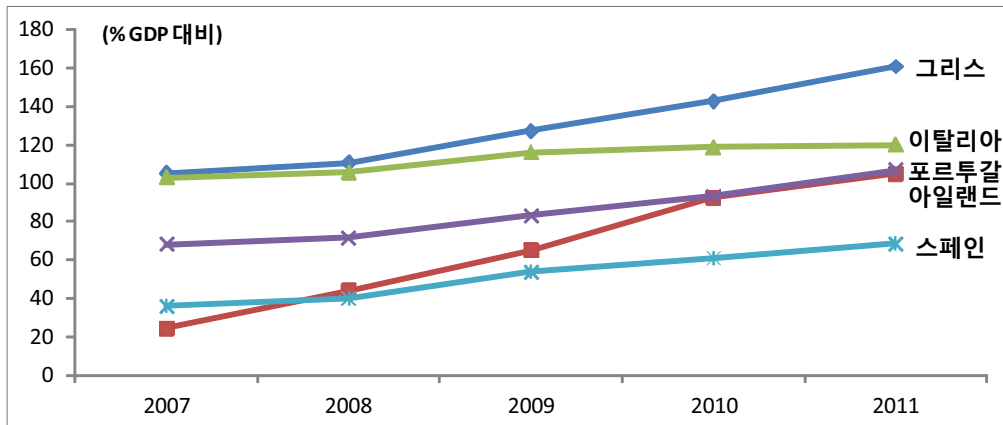
2. 유로존 재정위기의 본질과 장기화 이유

(1) 유로화 도입 이후 방만한 차입과 금융위기로 정부부채 급증

2009년 이후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그리스 등 남유럽국들은 과거 1999년 유로존 출범으로 신용도가 향상되자 무분별하게 차입을 확대하였다. 유로화 출범전인 1993년 그리스 등 남유럽국들의 국채(10년물) 금리가 독일에 비해 5%p 정도 높았으나, 유로화 출범 이후인 2000년에는 금리차가 0.5%p 이내까지 축소되었다. 유로화 도입으로 금리 하락의 혜택을 입은 남유럽국들은 국채 발행을 확대하여 복지, 국방 등을 중심으로 지출을 확대하게 되었다.

남유럽 국가들의 정부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2007년말 105.4%였으나 2011년말 160.8%까지 급증하였으며, 스페인의 경우는 동기간 36.3%에서 68.5%로 배정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2008년 이후 금융위기 및 이에 따른 경기 침체가 발생하자,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남유럽국들도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대규모로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대규모 재정지출에 힘입어 2009년 중반 이후 각국의 경기는 회복세를 접어드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부채의 부담이 가계·은행 등 민간 부분에서 재정 부분으로 옮겨갔을 뿐이었다.

유로존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중 추이



자료 : IMF.

(2) 유로존 시스템의 한계와 독일의 해결자 역할 기피

유로존은 1999년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도입했으나 정치 체계는 기존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유지하는 불안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 보면 통화정책은 통합되었으나, 재정정책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통화정책의 통합과 재정정책의 분리라는 문제는 유로존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로존은 2010년 5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도입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IMF와 유사한 유럽안정기구(ESM)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기 해결을 위한 기금 도입 및 확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도입 초기부터 각국 행정부 및 의회의 반대에 부딪쳤으며, 현재도 기금 확대는 독일 등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통화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안정책을 시행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로 통화기준 금리를 1%로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장기대출(LTRO) 등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대응 및 결정의 중심에는 독일이 있다. 독일은 유로존 출범 이후 유로화 약세의 영향 등으로 무역흑자가 급증하는 등 국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도 유로존 국가 중 유일하게 연평균 4% 이상의 경제 성장을 달

성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유로존 내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은 유로화 탄생의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최후 대부자 역할을 거부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독일 메르켈 총리는 “서유럽이 남유럽의 빚을 떠안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말하는 등 여전히 유로존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독일의 입장은 과거 1920년대 통화증발에 따른 초인플레이션이 결국 히틀러의 등장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독일 국민의 뿌리 깊은 인플레이에 대한 공포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 금융권 자본 투입, 양적 완화 등 재정·통화 부문의 복합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로존의 정치·재정이 통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로본드 발행, 대규모 유동성 공급 등 획기적인 방안을 독일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남유럽을 중심으로 유로존 재정위기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유로존 재정위기 항방과 하반기 세계경제

(1) 기준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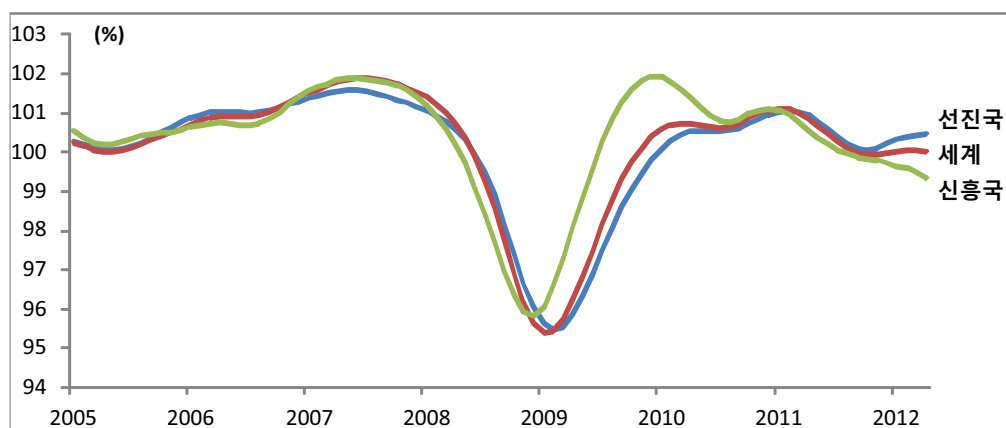
2012년 초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세계 선행지수(OECD+6개 주요 신흥국)는 3월 이후 다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은 5월 들어 8.2%로 재상승하는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1분기 성장률이 8.1%로 10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수출 등 대부분의 실물지표 둔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세계 실물경기 둔화는 그리스·스페인 등의 재정위기가 주요 원인이며, 하반기에도 유로존 재정위기가 세계 실물경기 회복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유럽 재정위기국의 대규모 국채만기 도래로 맞물려 반복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는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 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각국 정책 당국의 일정한 해결 노력으로 일정 수준에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스의 무질서한 유로존 탈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독일 등 유로존 중심국에도 득보다는 실이 크며, 미국·중국 등 주요국 정책 당국도 경기 부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하반기 유로존의 경우 3차 ECB 장기대출(LTRO), 미국은 3차 양적완화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은 6월 7일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는 25bp 인하하는 등 경기 하강 위협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결국 하반기 글로벌 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각국 당국의 노력으로 경기 급락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을 기준 시나리오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세계 선행지수 추이



자료 : OECD.

(2) 리스크 시나리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예상치 못한 이벤트 발생에 따른 테일 리스크(tail risk)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그리스 등 남유럽 국민들의 불만 고조 및 정치 불안 상황을 감안할 때, 그리스의 갑작스런 유로존 탈퇴, 스페인 대형 은행의 부도 등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스의 경우, 경기 및 재정 상황 등을 볼 때 2~3년 내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지만, 그리스 경제의 유로존 내 비중이 2%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질서 있는 유로

존 탈퇴 시 유로존 및 세계 경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만약 준비되지 못한 채 무질서하게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세계 금융시장 및 경제 충격은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 사태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그리스는 유로존 출범 이전 통화인 드라크마화로 복귀하나, 드라크마화는 한 달 내에 유로화 대비 가치가 50% 이상 폭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GDP는 물가 급등 및 수입 원자재 부족 등으로 20% 이상 축소되고 적어도 2014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이 예상 가능한 리스크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계 은행들의 대규모 자산상각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유로존은 위기 극복을 위해 GDP 대비 5% 이상의 비용을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탈리아·스페인 등의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추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유로존의 위기는 교역 및 금융시장을 통해 미국·중국 등 세계 각국으로 전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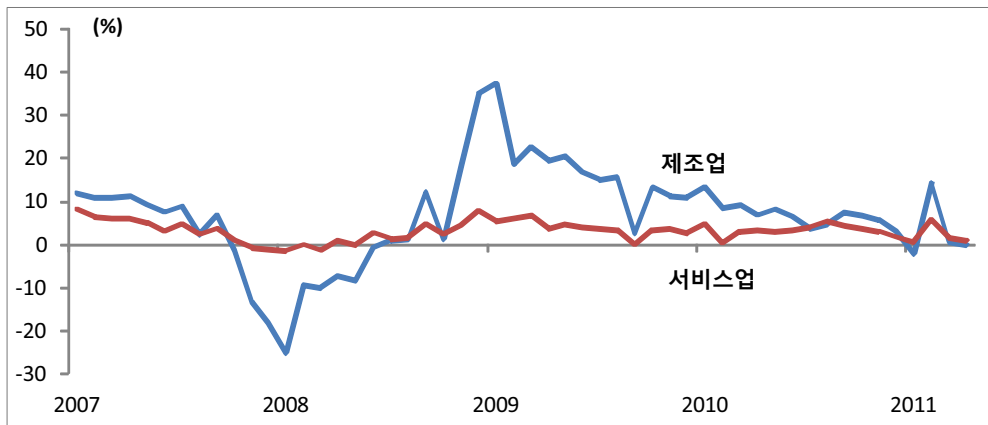
4. 하반기 국내 경제 향방

(1)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하강 국면 지속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 둔화 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도 상 제조업 경기는 2011년 2분기 이후 둔화 및 하강 국면으로 진입한 이후 2012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은 5월 전년동기비 0.4% 감소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무역수지의 경우 3개월 연속 20억 달러 대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불황형 흑자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소비 또한 최근 증가율이 0% 대에 머무르는 등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복 등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서비스생산의 경우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5월 전년동기비 1% 증가에 그친 상황이다.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추이



자료 : 통계청

(2) 하반기 국내경제, 수출 둔화 등으로 3% 초중반 성장에 그칠 전망

유로존 재정위기, 이란핵 사태 등 리스크 부상으로 하반기 수출 여건이 호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20% 이상인 점을 볼 때 최근의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은 대외 수요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10%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부채도 하반기 경기 회복의 부담 요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 부채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문제가 2008년 이후 미국·스페인 등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 부실로 직접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가 미진한 가운데 가계의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은 점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외 주요 전망 기관들은 2012년 국내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5월에 3.3%로 추가 조정하였다. 국내 기관들도 4~5월 중 한국은행(3.7%→3.5%), 한국개발연구원(3.8%→3.6%), 한국금융연구원(3.8%→3.6%)도 2012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다. 최근 실물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볼 때 하반기 국내 경제 성장률은 국내외 전망 중 가장 낮은 3% 초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요 기관의 2012년 국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

구분	기존	수정	수정 시기
한국은행	3.7%	3.5%	4월
한국개발연구원	3.8%	3.6%	5월
한국금융연구원	3.6%	3.4%	5월
OECD	3.5%	3.3%	5월
IMF	3.5%	3.25%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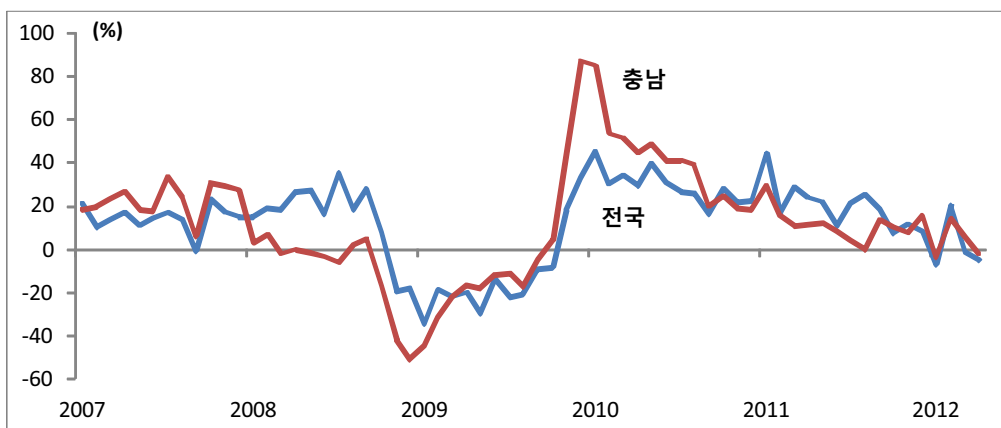
자료 : 언론 발표 자료 취합.

5. 충남 경제의 영향

(1) 하반기 충남 경제도 부진 지속 예상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하반기 국내 수출은 부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10% 이하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지역의 수출도 전국 수출과 비슷하게 하반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제는 주로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고 소비 등 내수는 수출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하반기 충남의 경제도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의 회복세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및 충남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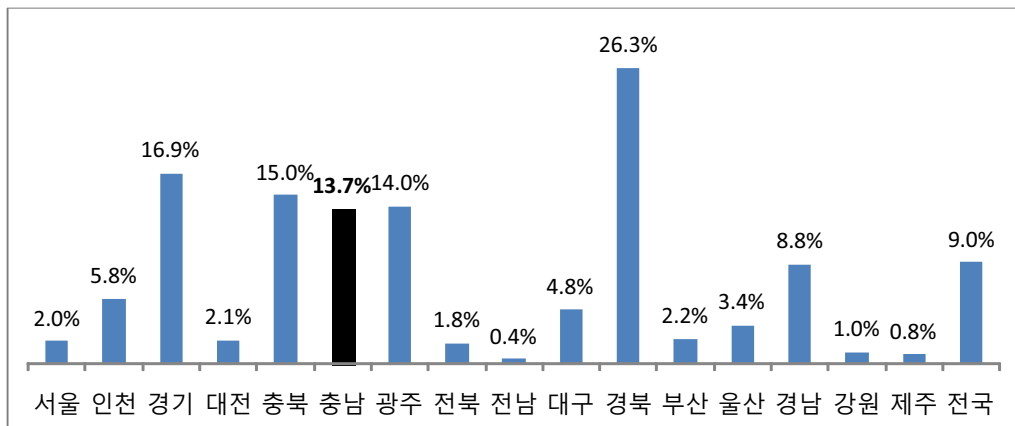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2) 글로벌 위기 발생시 충남 경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IT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제조업의 경기 둔화폭은 건설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적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 혁신 바람과 그린 중심의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근저에 있었다. 만약 하반기 그리스의 무질서한 유로존 이탈 등 테일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각국의 그린 중심의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 IT 부문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남에는 탕정 등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충남의 전기·전자 산업의 매출 비중은 13.7%로 전국의 5위권 안에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충남 경제에서 전기·전자 산업의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 되더라도 전기·전자 산업이 일정 부분 완충 작용함에 따라 충남의 경제는 위기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 산업 매출액 중 전자·전자 비중(2005년 기준)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환경 분석

김 양 중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 론

-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유치는 지역경제의 주요한 발전수단의 하나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동시다발적 FTA가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충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외투기업유치는 해외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 등의 도입으로 지역의 산업고도화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지역의 고용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임
-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충남도 또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정비와 투자지원제도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추진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외투기업이 정말 중요시 하는 투자환경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파악해야 함
- 이에 본 글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외투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남도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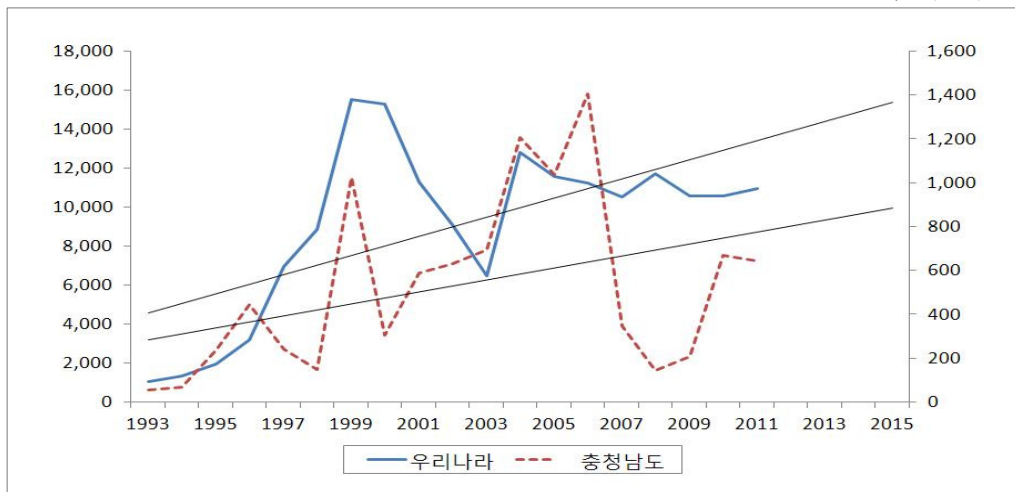
- 표본은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기업 전수(170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1년에 이루어졌고 회수율은 47%, 표본오차는 $\pm 4.4\%$ 였음

2.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5년 19.7억불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115.6억불까지 급증하였으며,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신고액기준)은 109.5억불 수준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1995년 2.4억불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10.4억불까지 급증하였으며, 충남의 2011년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6.4억불임
- 2011년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이 가장 많은 시도는 서울로 39.1억불이며, 경기(13.5억불), 경북(8.4억불), 전남(6.7억불), 울산(6.6억불) 순이며 충남은 6.4억불로 울산에 이어 6위임

우리나라와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신고액기준) 추이

(단위 : 백만불)



자료 : 지식경제부

-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까지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07년과 2008년 급감하였고 2010년 다소 회복되었음
- 우리나라와 충남의 직접투자 추이를 비교해보면 충남의 성장추세가 우리나라의 성장추세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이는 충남의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어 성장추세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3. 충남의 외국인투자기업 입지환경

- 입지환경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입지환경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시장환경	시장규모, 사업정보 획득, 기술도입 및 확보, 원부자재 조달 등
노동환경	임금수준, 인력수급, 노사관계 안정성, 노동력의 질 등
부동산환경	토지가격, 부지확보 용이성, 토지 및 사무실 임차비용 등
금융환경	자금조달 용이성, 금융정보 획득 용이성, 해외금융 이용 편리성 등
행정서비스환경	회사(공장)설립절차, 행정서비스 질, 기업지원체계, 지적재산권 보호 등
조세환경	조세 행정기관의 서비스, 감세정책 등
교통환경	해상교통, 국제항공, 인접지역 연계교통(도로, 철도 등)
생활환경	언어소통, 외국인 생활비용, 외국인 교육시설, 외국인 의료시설 등

- 외투기업의 입지를 결정짓는 사업환경을 시장환경, 노동환경, 부동산환경, 금융환경, 행정서비스환경, 조세환경, 교통환경,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다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기업 입지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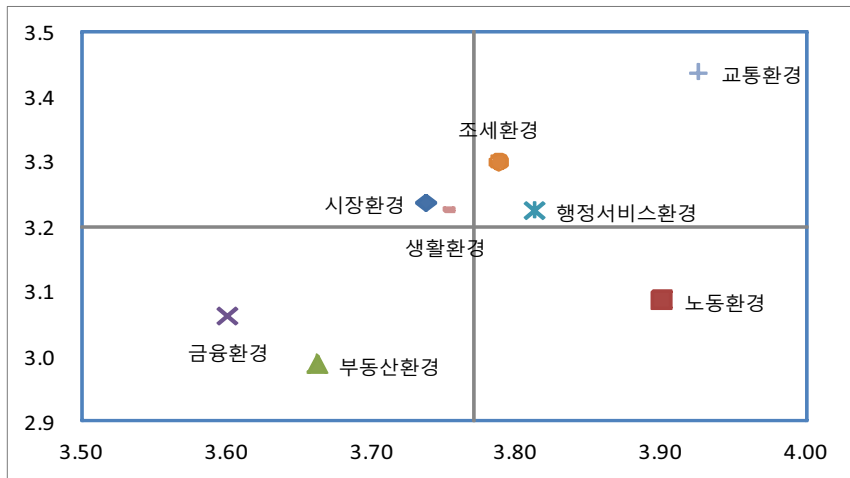
- 외투기업은 투자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통환경(도로, 철도 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환경, 행정서비스환경, 조세환경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충남의 부동산환경, 노동환경에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중요도와 차이도 커서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4.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위한 정책 방향

- 충남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타시도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성, 인력수급, 노동력의 질 등 노동환경 개선에 보다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충남은 교통환경, 행정서비스환경, 조세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점진적으로 부동산환경, 금융환경, 생활환경, 시장환경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생활환경 중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 분야는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반드시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외국인투자기업 입지환경 IPA 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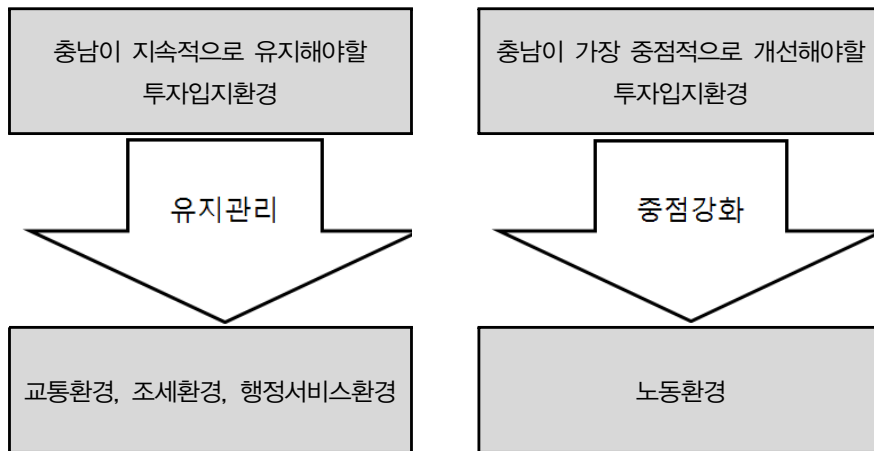
외국인투자기업 입지환경 IPA 분석결과

환경		방향
교통환경, 조세환경 행정서비스환경	➡	유지관리
노동환경	➡	중점강화
부동산환경, 금융환경 시장환경, 생활환경	➡	점진개선

5. 요약 및 제언

- 외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입지환경은 교통환경, 조세환경, 행정서비스환경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동환경의 경우 충남이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환경으로 나타났음

외투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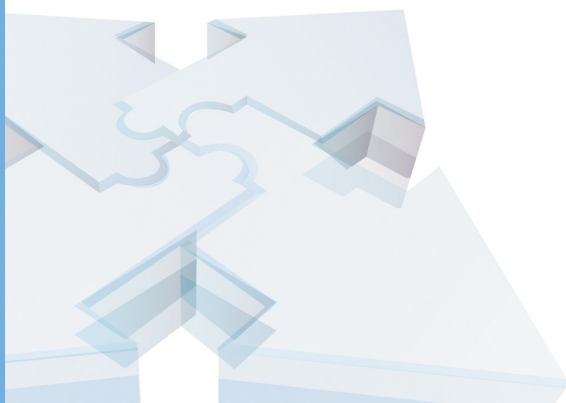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 충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외투기업의 기술도입 및 확보에 노력하고 특히 노동환경의 경우 외투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환경인 만큼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고용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대학 및 우수한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부동산환경의 경우 외투기업이 토지가격과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단지 개발과 산업단지 고도화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입지정보은행 등 기업이 원할 때 신속히 최적지를 찾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개발을 통해 저렴한 토지를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힘써야 할 것임

- 행정서비스환경은 외투기업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 충남은 다양한 공무원 인센티브제를 개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의식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이며, 외투기업이 충남에 투자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지원체계와 회사설립절차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또한 외투기업 임직원에게 교육시설, 의료시설의 필요성이 있는바 외국인학교 설립 등 정주환경의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임



Chungnam Economic Trends

기업탐방



농업벤처기업의 모델 (주)한국도라지

- www.한국도라지.com -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우리 민요에 ‘도라지 타령’이 있을 만큼 예로부터 도라지는 서민과 함께해 온 자생식물이다.

도라지는 한국, 중국 및 일본 등지에 널리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인 초롱꽃과에 속하는 식물로 염증성 호흡기 질환 치료 및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가을이나 봄철에 도라지의 뿌리껍질을 벗기거나 그대로 말린 것을 길경(桔梗)이라 하며 다양한 처방전에 널리 활용된다. 특히 한방에서는 배농, 거담, 편도선염, 최유, 진해, 화농성 종기, 천식 및 폐결핵의 거담제로서, 그리고 늑막염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국도라지 전경

* 주 : 기업탐방은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격월로 연재됩니다.



(주)한국도라지 이장영 대표

이 있다. 바로 (주)한국도라지다.

이 회사는 예부터 구전으로 선약(仙藥)의 효능이 있다고 전해져 오던 ‘도라지’를 과학기술로 현대화에 성공, 생산하고 있다. 한국도라지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제품화해 성공하기 매우 힘들다는 기존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농업벤처기업 모델로 서고 있는 것이다.

충남 홍성군 장곡면 죽전리 341-1 일대 500평 부지에 자리잡은 한국도라지는 도라지를 단순히 생체상태로 판매하지 않고 액상차와 환(丸), 생청, 찜아찌, 피클, 요리당 등 6개종 12개 제품으로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산나물로 알려진 도라지를 한국의 대표적 농업상품으로 개발, 도라지 매니아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의 기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국도라지는 이장영(50) 대표가 개발한 재배법(특허 10-0910254호)에 의해 홍성군 일대 금마, 내법, 오성 등 오서산 자락에서 순수 자연상태에서 3년 이상 생장한 토종 도라지를 사용한다. 국내 토종 도라지는 연구결과 인체에 유용한 약리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식품은 물론 의학적 가치까지 인정받고 있다.

이 대표는 “도라지의 효능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까지는 도라지의 항 염증 효능 및 도라지 성분 분석에 관한 약리학적 연구 위주로 수행돼 왔다”며 “그 후 간 독성 보호효과 및 면역증진 등과 같은 도라지의 우수한 효능이 한국 과학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도라지의 암 예방 및 항암작용 가능성이 강력히 대두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도라지가 간에 좋다는 주장도 나왔다”며 “독성에 해를 입기 쉬운 간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라지의 주요 약리성분은 트리테르페노이드(triterpenoid)계 사포닌으로 밝혀졌으며 기관지분비를 항진시켜 가래를 삭히는 효능이 있다. 또 사포닌의 이눌린 성분은 실험 결과, 항암 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런 천혜의 자연식품 도라지를 특화된 현대기술과 접목시켜 다른 건강식품과 차별화를 선언한 농업벤처기업

도라지 개발 동기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는 말이 있죠. ‘음식이 곧 약이다’ 라는 뜻인데요. 음식으로 암을 예방도 하고, 고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장영 대표의 말이다.

도라지는 우리의 신체적 특성과 기후에도 알맞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의 토양도 도라지가 산업화에 좋은 조건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약식동원이라 하여 섭생을 건강관리법의 으뜸으로 꼽았다. 약식동원이란 약과 음식의 근원은 같다는 얘기다.

이 대표가 도라지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기관지염을 심하게 앓던 아들 때문이다. 그 당시 이 대표와 아내 이혜경씨는 아들의 병을 낫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 다녔지만 이렇다 할 묘책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으로부터 도라지를 꾸준히 복용하면 기관지가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후 병치레가 잦던 아이는 차츰 건강을 회복했고, 이 대표는 도라지의 신비함이 새삼 놀라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을 중도에 접고 고향(홍성)을 찾아 도라지 연구에 심취하게 됐다.



도라지 박피작업



부로아 세척

이제 그는 반도라지에 미친 사람이 됐다. 생산기반마저 벼랑 끝에 내몰린 토종 도라지를 지키기 위해 17년이란 젊음을 다 바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도라지의 파종과 수확, 가공 등 모든 생산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도라지 관련 특허를 6개나 따 ‘도라지 박사’로 우뚝 섰다.

17년 도라지를 향한 진념



(주)한국도라지 생산 제품

나물로만 여겨져 오던 도라지를 다양한 건강식품 개발하기까지 이 대표는 도라지의 특성을 잘 몰라 쓰라린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그는 “도라지가 무나 배추처럼 씨를 뿌리면 바로 나오는 작물인줄 알았는데 봄에 직파 재배를 해야 했고, 봄에 정확한 조건을 형성해주지 않으면 작물이 제

대로 자라지 못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특히 “씨를 뿌린 뒤 제초, 수확, 박피, 쪼개기를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구식 농법 때문에 저가 상품으로 쏟아지는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시름의 연속이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 대표는 과감하게 기계화 영농을 시도했다. 노동력을 기존 농법의 30% 수준으로 대폭 절감한 재배법을 개발했고, 재배 때 인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씨 뿌림과 제초과정에서 2개의 특허를 따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 대표는 내친김에 도라지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연구에 돌입했다. 2009년 가공공장 (주)한국도라지를 설립하고, 새로운 식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한국농촌진흥원과 홍성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과 자금지원을 받은 그는 2010년 △액상차 △잼 △장아찌 △피클 △환 △어린이음료 등 6종의 신제품을 출시했다. 그가 개발해낸 것은 도라지가 항암효과를 비롯해 인후, 폐질환, 가래, 천식 등에 도움이 된다는 동의보감 기록을 근거로 만든 건강음료와 식품들이다.

인삼에 버금가는 사포닌 성분을 활용한 건강음료인 액상차는 효능과 맛이 뛰어나 생산량이 소비자 주문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이 음료는 국내 기존 도라지 음료보다 원재료가 월등히 많이 들어가 당도와 효능이 우수하다. 장·노년층이 선호하는 새로운 건강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다.

피클과 어린이음료는 학교급식 납품을 시작하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음료는

도라지를 주원료로 파인애플, 복분자, 오렌지, 망고, 포도과즙을 혼합했다. 도라지의 씹쌀함을 부드럽게 바꿔 서구 음식에 길들여진 어린이들의 입맛을 돌려놓고 있다. 특히 도라지피클은 피자와 햄버거, 치킨에 사용되는 오이피클 대체음식으로 떠올라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밖에 도라지를 갈아 액상차를 첨가한 기능성식품인 생즙은 반찬이나 간식용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40~50대가 주로 찾는 장아찌는 독특한 식감으로 식탁에 자주 오르고 있다.

공생발전의 모델을 꿈꾸는 (주)한국도라지... ‘충남형 사회적 기업’

올해 3월 충남형(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주)한국도라지.

이 대표는 사회적기업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기술료도 받지 않고 농민들에게 한국도라지 특허농법을 전수하고 있다. 그 결과 가격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도라지 신농법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이에 매료된 농민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고, 이후 그는 농민들과 의기투합해 ‘도라지연구회’를 만들었다. 이 연구회는 모두 53농가가 참여해 전국 최대의 도라지 생산단체로 성장했으며, 연간 도라지 생산량이 420톤에 이른다.

이 대표는 “크다고 좋은 기업이 아니다”며 “비록 작지만 미래가 밝고 직원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면 좋은 기업”이라고 강조한다.

도라지 생산·가공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역민 모두가 상생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장영 대표.

그는 끝으로 “녹록치 않겠지만 귀농인의 성공사례를 꼭 보여 주겠다”며 “도라지 재배면적을 지금의 2배 이상 늘리고 단지화해 도시 관광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과 가공 후 남는 도라지 줄기와 잎 등 부산물을 가축사료 등으로 개발해 농가에 공급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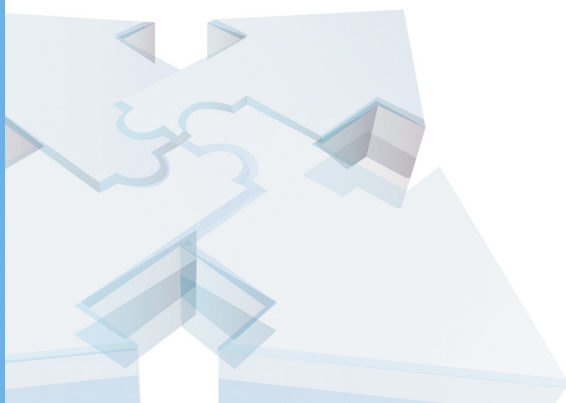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주)한국도라지의 인터넷홈페이지(www.한국도라지.com)에 접속하거나 본사 ☎ 041-642-2706번으로 전화하면 이 회사와 제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터뷰 :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4월)			소 비(4월)	물 가(5월)		대외거래(5월)		고 용(5월)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가)	생활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액 (백만달러)	수입액 (백만달러)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50.7	144.0	160.9	123.8	106.1	106.2	47,052	44,796	25,939	25,133	3.1
서울	89.4	92.2	182.0	125.8	105.7	106.3	4,992	9,854	5,331	5,115	4.1
부산	131.5	128.9	178.3	125.3	107.3	107.0	1,216	1,247	1,702	1,640	3.7
대구	133.4	129.2	165.0	107.2	107.6	106.9	620	329	1,257	1,221	2.9
인천	115.5	113.7	136.7	117.0	104.8	105.2	2,289	3,333	1,495	1,426	4.6
광주	156.0	154.5	105.7	132.6	105.8	105.9	1,181	404	710	689	3.0
대전	137.0	132.8	88.1	112.8	106.4	106.5	327	253	758	730	3.7
울산	125.5	132.5	131.9	116.3	106.5	106.1	8,226	7,858	569	555	2.5
경기	180.1	159.2	229.2	122.4	105.6	106.0	7,533	8,398	6,232	6,017	3.4
강원	138.3	135.1	170.0	150.8	106.8	106.6	178	135	739	725	1.9
충북	160.3	172.9	198.3	110.1	106.9	106.5	1,041	669	801	788	1.6
충남	239.4	212.7	256.0	162.8	107.2	106.8	5,081	3,117	1,113	1,094	1.8
전북	134.8	136.2	133.8	122.4	107.0	106.7	1,006	468	894	875	2.1
전남	133.1	126.9	130.2	136.9	106.8	106.5	3,649	4,407	940	930	1.1
경북	106.4	108.8	140.9	123.7	107.3	106.6	4,277	1,784	1,449	1,414	2.4
경남	144.1	146.9	138.1	132.6	106.1	106.3	5,429	2,515	1,650	1,621	1.8
제주	142.9	128.3	95.7	142.8	105.0	105.3	7	23	300	295	1.8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경제 동향(요약)



- 4월 전국의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하락하였으며,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보합
- 4월 충남경제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상승세 반전, 기업경기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하여 기업체감경기 악화 지속
산업활동은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나 그 폭이 작고, 물가 상승세 지속되고 있음. 대외거래는 증가세로 반전, 고용사정은 개선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다소 주춤함

경기

- 4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한 143.7을 나타냄
- 충남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전월에 비해 0.1p 상승하여 경기하락국면에서 반전
- 6월 BSI는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하락(제조업 84, 비제조업 76)
-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지속되는 내수부진과 함께 원자재가격 상승, 기업들의 경쟁 심화가 기업 경영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음
- 시장경기의 모든 체감지수가 상승하였으나, 전망은 대부분의 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할 것으로 조사됨

산업활동

- 4월 광공업 생산지수 +0.8%(236.1) 전월대비 증가, 출하지수 -1.3%(209.9), 재고지수 -2.8%(259.2) 전월대비 감소
- 영상·음향 및 통신, 석유정제품 등의 증가가 생산 증가에 기인

소비 및 물가

- 4월 대형소매점판매액(-6.5%) 및 대형마트판매액(-9.2%) 모두 전월대비 감소세로 전환
- 5월 자동차등록대수는 884,348대로 전월대비 0.3%(2,432대) 증가
- 5월 소비자물가지수 106.8(+0.4%), 생활물가지수 107.2(+0.3%) 모두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

수출입

- 5월 수출은 전월대비 7.1% 증가(50억81백만달러, 반도체 +15.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4.9% 등)
- 수입은 전월대비 4.9% 증가(31억17백만달러, 원유 +10.2%, 석유제품 +13.6% 등)
- 5월 무역수지는 19억64백만달러 흑자(전월대비 1억92백만달러 증가)

고용

- 5월 경제활동인구 전월대비 1.1%, 경제활동참가율 0.7%p 각각 증가(65.3%)
- 취업자 전월대비 2.3% 증가한 1,094천명(농림어업 188천명, 광공업 209천명, 건설업 70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199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30천명 등)
- 5월 실업률 1.8%로 전월대비 0.7%p 하락, 실업자 20천명으로 전월대비 27.5% 감소

금융

- 4월 금융기관 수신 전월대비 감소세 전환, 여신 전월대비 증가세 지속
- 4월 금융기관 총 수신증감액 -5,186억원, 총 여신증감액 +4,344억원
- 4월 어음부도율 0.20%로 전월보다 0.07%p 상승
- 4월 부도금액 28억1천만원으로 전월보다 10억7천만원 증가

건설 및 부동산

- 5월 건축허가면적 전월대비 1.4%(827,663㎡), 착공면적 4.5%(595,332㎡) 증가
- 4월 토지거래는 15,022건으로 전월대비 6.3% 증가, 면적은 전월대비 20.8% 감소
- 5월 주택 매매가격지수 108.0으로 전월대비 0.5%, 전세가격지수 111.0으로 전월대비 0.6% 각각 상승(주요상승지역; 천안 서북구, 아산)

1.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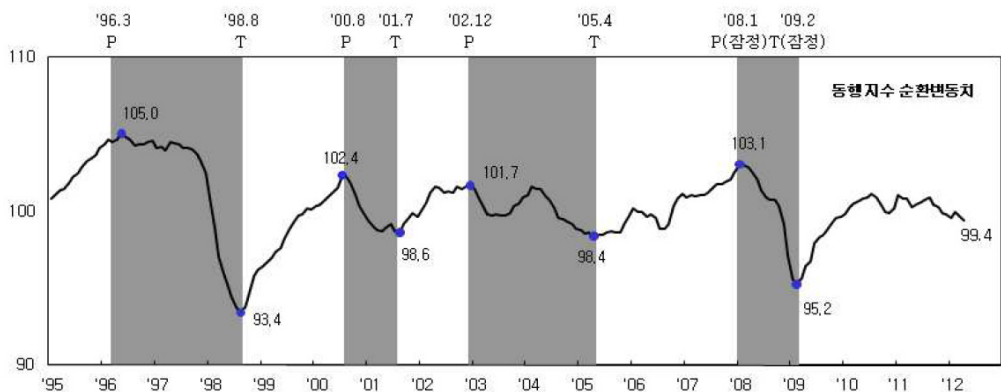
[전국 경기동향]

- 4월 전국 동행종합지수는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은 감소하였으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3%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p 하락

동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 추이

(2005=100)

구분	'11.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o	3월 ^o	4월 ^o
○ 동행종합지수	140.7	141.1	141.1	141.7	141.9	143.1	143.2	143.6
· 전월비(%)	0.0	0.3	0.0	0.4	0.1	0.8	0.1	0.3
○ 순환변동치	100.4	100.3	99.8	99.8	99.6	100.0	99.6	99.4
· 전월차(p)	-0.5	-0.1	-0.5	0.0	-0.2	0.4	-0.4	-0.2



· 회색부분은 경기수축기임.

- 4월 선행종합지수는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등은 감소하였으나, 소비자기대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4% 상승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8로 전월과 동일

선행종합지수 추이

구분	'11.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o	3월 ^o	4월 ^o
○ 선행종합지수	136.6	136.8	137.1	137.7	138.7	140.1	140.7	141.2
· 전월비(%)	0.0	0.1	0.2	0.4	0.7	1.0	0.4	0.4
○ 순환변동치	99.4	99.2	99.0	99.0	99.2	99.9	99.8	99.8
· 전월차(p)	-0.4	-0.2	-0.2	0.0	0.2	0.7	-0.1	0.0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비해 0.1p 상승한 99.7을 나타냄
 - 4월 동행종합지수는 대형소매점판매지수의 하락폭이 작아지고 다른 지표들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4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

동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 %p)

구 분	'11.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p	3월 ^p	4월 ^p
○ 동행종합지수	140.3	141.0	141.6	142.0	142.5	143.1	143.1	143.7
· 전월비(%)	0.4	0.5	0.4	0.3	0.4	0.4	0.0	0.5
○ 순환 변동치	100.3	100.4	100.4	100.2	100.1	100.1	99.6	99.7
· 전월차(p)	0.0	0.1	0.0	-0.2	0.0	0.0	-0.5	0.1

주 : p는 잠정치임.

- 4월 충남의 경기동향은 산업생산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영향으로 대형소매점판매액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 비농가취업자수(+0.9%), 전력사용량(+1.7%), 수출액(+3.5%), 수입액(+0.4%) 증가
 - 대형소매점판매지수(-2.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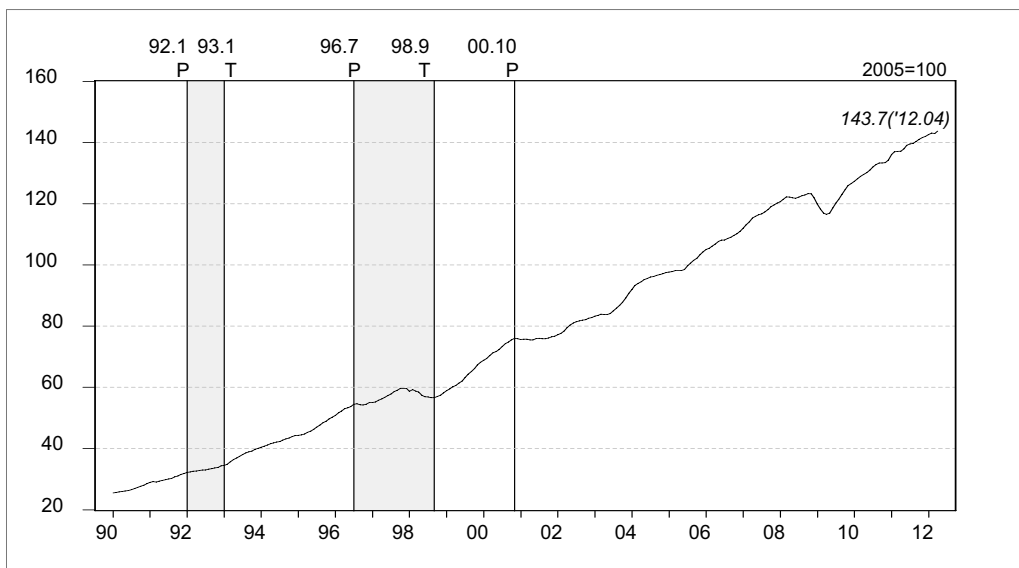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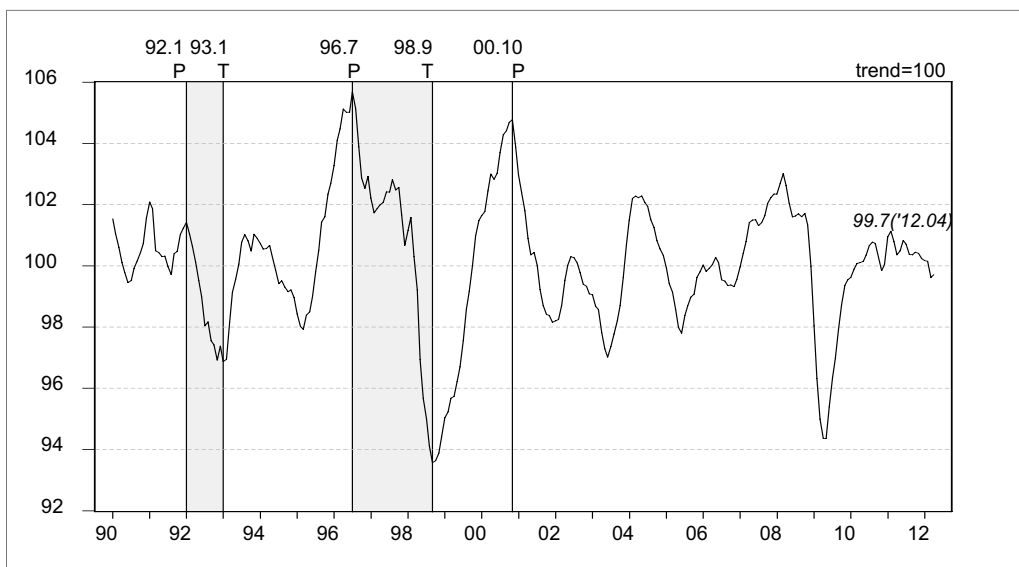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11.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p	3월 ^p	4월 ^p
비농가취업자수	0.1	0.4	1.1	0.7	0.5	-0.1	0.4	0.9
산업생산지수	1.0	0.8	-0.4	-0.8	0.2	1.1	0.0	0.0
대형소매점판매지수	0.0	1.0	0.7	2.3	-4.6	-4.5	-8.2	-2.8
전력사용량	0.4	0.4	0.0	-0.1	1.3	1.1	1.9	1.7
수출액(실질)	0.9	1.1	0.5	1.2	5.9	7.0	5.2	3.5
수입액(실질)	2.1	1.6	0.2	-0.6	0.3	1.4	-2.6	0.4

주 : 증감율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6월 대전·충남지역 제조업 업황BSI 하락, 자금사정전망 BSI 보합
 - 제조업 업황 BSI는 84로 전월(88)보다 4p 하락, 자금사정전망 BSI 95로 전월(95)과 보합을 나타냄
- 6월 비제조업 업황 BSI 하락, 자금사정전망 BSI 상승
 - 비제조업 업황 BSI는 76으로 전월(80)보다 4p 하락, 자금사정전망 BSI는 94로 전월(92)보다 2p 상승
 - 대전·충남지역 제조업 및 비제조업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다소 하락하였으며, 제품재고 및 외부자금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하여 기업경기 악화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지역내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지속되는 내수부진과 함께 원자재가격 상승, 수출 부진 등이 주된 기업 경영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음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1.12월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82	87	90	85	86	88	84(86)	-4(-4)
매출	95	92	97	105	103	102	99	-3
생산	98	97	106	109	105	106	100	-6
신규수주	96	97	102	106	101	102	96	-6
채산성	89	90	92	92	91	93	90	-3
제품재고	103	106	103	103	103	105	106	+1
인력사정	92	93	92	89	89	92	92	0
자금사정	96	96	95	93	95	95	95(88)	0(-4)
외부자금수요	120	120	116	110	111	107	111	+4
자금조달사정	96	94	95	95	96	100	99	-1

주 : ()내는 전국 기준.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1.12월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77	77	71	73	76	80	76(83)	-4(-2)
매출	90	89	86	87	83	91	86(94)	-5(0)
채산성	90	86	81	90	88	89	84(90)	-5(0)
인력사정	88	92	92	90	86	84	81(89)	-3(0)
자금사정	82	79	71	81	88	92	94(89)	+2(-4)
외부자금수요	115	122	122	117	112	112	108	-4
자금조달사정	91	83	81	89	96	95	95	0

주 : ()내는 전국 기준.

$$BSI^*(\text{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이면 경우에는 긍정응답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시장경기 동향]

- 5월 충남지역 시장경기는 매입원가를 제외한 모든 체감지수가 전월보다 상승
 - 상승지수 : 업황(+12.2p), 매출(+12.1p), 마진(+7.2p), 상품판매가격(+4.4p), 자금사정(+11.8p), 구매고객수(+11.4p)
 - 하락지수 : 매입원가(-10.2p)
 - 날씨 및 계절적 요인과 성수기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체감지수가 전월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6월 시장경기 전망은 자금사정을 제외한 모든 지수가 전월보다 하락
 - 상승지수 : 자금사정(+3.5p)
 - 하락지수 : 업황(-10.1p), 매출(-23.7p), 마진(-14.1p), 매입원가(-5.2p), 상품판매가격(-7.4p), 구매고객수(-14.5p)
 - 소비심리위축과 대형마트, SSM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등으로 전통시장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시장경기 체감 및 전망

(기준지수=100)

구분		'11.12월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전망)
업황	전국	52.6	50.5	48.4	41.7	62.8	64.8	71.4
	충남	59.7	54.2	43.3	47.0	67.4	79.6	73.2
매출	전국	51.9	53.3	52.4	42.5	61.9	68.5	76.8
	충남	66.6	62.9	43.8	48.7	64.3	76.4	76.1
마진	전국	56.0	51.5	47.9	43.3	58.8	64.7	76.3
	충남	68.9	65.3	45.6	55.2	65.3	72.5	72.9
매입 원가	전국	134.9	129.1	131.0	141.2	129.7	128.8	112.0
	충남	132.8	130.4	125.8	145.3	135.3	125.1	108.2
상품 판매가격	전국	106.9	96.2	98.6	96.2	96.1	98.2	97.1
	충남	108.3	97.3	98.9	101.6	98.6	103.0	95.2
자금 사정	전국	60.1	54.0	46.5	42.2	56.2	61.9	71.6
	충남	69.5	54.4	46.0	49.1	56.7	68.5	75.0
구매 고객수	전국	52.2	55.2	47.7	40.6	58.3	64.1	73.7
	충남	60.9	58.4	37.1	46.3	56.4	67.8	70.4

주 : 당월을 제외한 수치는 체감지수를 나타냄(당월 : 전망지수).

자료 : 시장경기동향조사보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2. 산업활동

[광공업 산업활동]

- 4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2%, 전월대비 0.8% 각각 증가
 - 기계 및 장비, 비금속광물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화학제품, 석유정제품,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증가
- 출하는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재고 역시 전월대비 감소
 - 출하는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 가구 등의 업종이 감소
 - 재고는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자동차 등이 증가하였으나, 전기장비, 가구제조업 등의 업종 감소

광공업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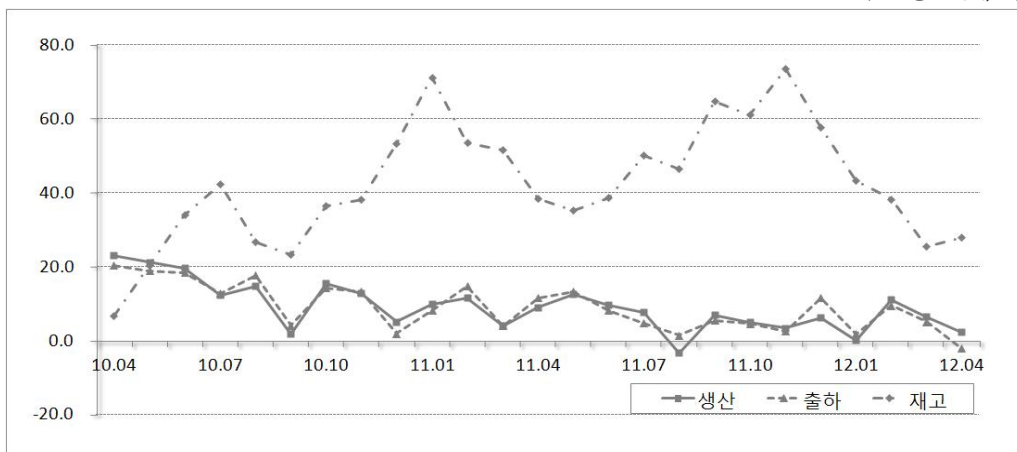
(2005=100.0, %)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4월	1월	2월 ^P	3월 ^P	4월 ^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생 산	149.6	143.7	148.4	155.3	149.6	0.0	0.9
	출 하	144.2	137.2	141.7	148.6	142.7	-1.0	0.9
	재 고	136.5	164.0	164.0	159.1	158.7	16.3	0.9
충남	생 산	231.1	223.2	226.1	246.1	236.1	2.2	0.8
	출 하	214.5	199.6	206.2	223.0	209.9	-2.1	-1.3
	재 고	202.6	309.2	289.7	268.6	259.2	27.9	-2.8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통계청.

충남의 광공업 산업 활동 추이

(전년동월대비, %)



3. 소비 · 물가

[소비]

- 4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전월대비 6.5% 감소
 -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82,257백만원, 지수는 162.8을 나타냄
 - 대형마트 경상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전월대비 9.2% 감소
 - 내구재,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의 감소로 대형마트 판매액 전월대비 감소
- [전월비 주요 상품군별 증감(%)]
- 내구재(-12.4) : 컴퓨터(-29.5), 가구(-18.9), 가전제품(-6.0)
 - 준내구재(-3.7) : 신발(-8.2), 의복(-0.5)
 - 비내구재(-10.4) : 서적·문구(-41.2), 화장품(-14.2), 음료식품(-8.6)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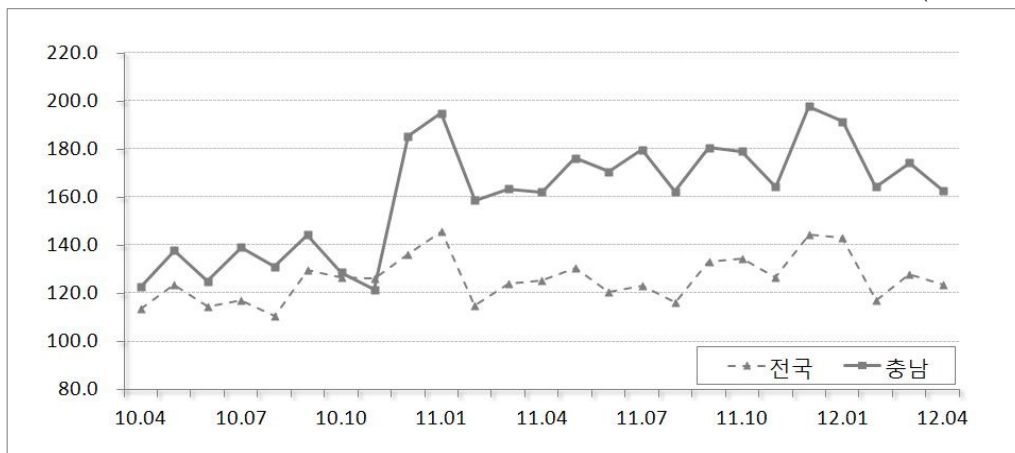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4월	1월	2월	3월 ^p	4월 ^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 국	5,141,791	6,105,458	4,986,481	5,457,274	5,275,843	2.6	-3.3	
충 남								
대형소매점	111,521	136,752	116,617	124,630	82,257	4.4	-6.5	
대형마트	69,653	90,781	76,801	116,482	72,898	4.7	-9.2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005=100)



주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

[자동차 등록]

- 5월 충남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전년동월대비 3.7% 전월대비 0.3% 각각 증가
 - 5월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884,348대로 전년동월보다 31,311대, 전월보다 2,432대 증가
 - 차종별로는 승합차를 제외한 승용차(+0.3%), 화물(+0.1%), 특수화물(+0.4%)의 전월대비 등록대수 증가
 - 전년동월대비 승합차(-1.7%)는 감소한 반면 승용차(+4.8%), 화물차(+1.4%), 특수화물차(+7.0%) 등록대수 증가

자동차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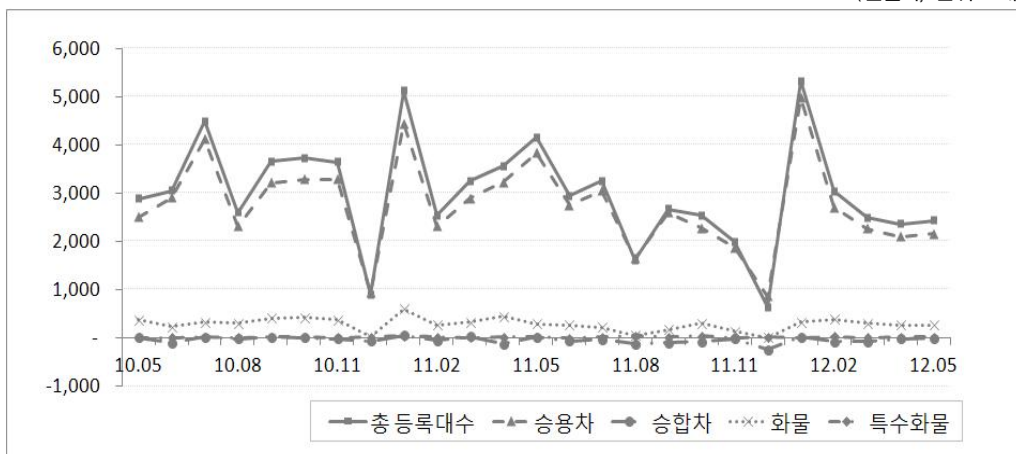
(단위 : 대)

구분		2011년	2012년				증 감	
		5월	2월	3월	4월	5월	전년동월차	전월차
합계		853,037	874,019	879,550	881,916	884,348	31,311	2,432
차 종 별	승용	604,388	624,415	629,387	631,481	633,644	29,256	2,163
	승합	50,310	49,661	49,500	49,485	49,474	-836	-11
	화물	195,599	197,073	197,761	198,031	198,298	2,699	267
	특수화물	2,740	2,870	2,902	2,919	2,932	192	13
용 도 별	자가용	81,331	831,710	837,132	839,410	841,774	28,473	2,364
	관용	4,026	4,014	4,052	4,106	4,144	118	38
	영업용	35,710	38,295	38,366	38,400	38,430	2,720	30

자료 : 시군별 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 추이

(전월차, 단위 : 대)



[물가]

- 5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로 전년동월대비 3.0%, 전월대비 0.4% 각각 상승
 - 농축수산물(+8.2%), 공업제품(+3.6%), 서비스(+1.7%) 등 주요 품목의 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대부분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07.2로 전년동월대비 3.2%, 전월대비 0.3% 각각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116.5로 전년동월대비 16.3%, 전월대비 2.6% 각각 상승
 - 신선어개(+5.1%), 신선과실(+17.9%), 신선채소(+30.9%) 전년동월대비 상승

소비자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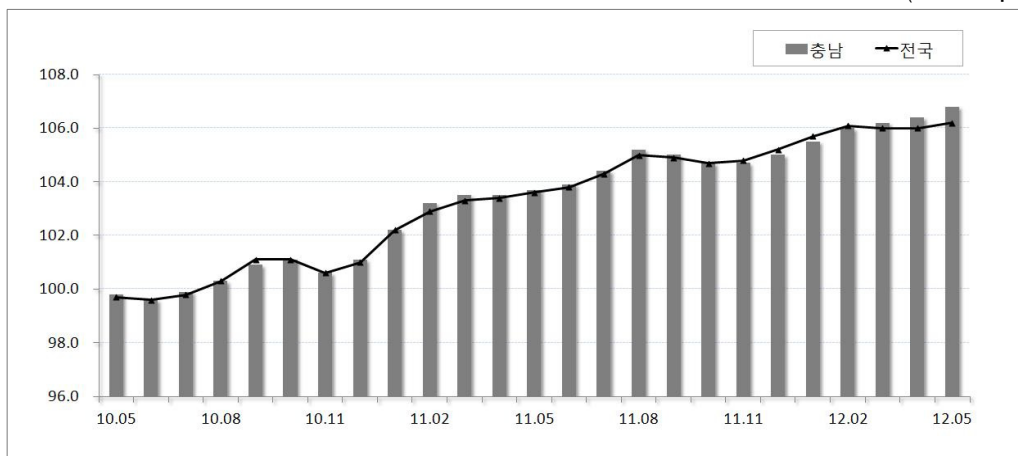
(2010=100,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5월	2월	3월	4월	5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03.6	106.1	106.0	106.0	106.2	2.5	0.2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03.7	106.0	106.2	106.4	106.8	3.0	0.4
	상품	상 품	105.2	108.6	109.3	109.2	109.8	4.4	0.5
		생활별 서비스	102.2	103.4	103.2	103.7	103.9	1.7	0.2
	생활물가지수		103.9	106.4	106.7	106.9	107.2	3.2	0.3
	신선식품지수		100.2	111.1	115.1	113.5	116.5	16.3	2.6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4. 수출입

[수출입]

- 5월 충남의 수출은 50억81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2%, 전월대비 7.1% 각각 증가
 -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의 수출감소세 축소로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던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
 - 충남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의 수출 감소로 인해 지역 수출이 다소 주춤
- 5월 충남의 수입은 31억17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2.1%, 전월대비 4.9% 각각 증가
 - 주요 수입품목인 석유제품의 증가세 전환으로 수입의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확대
 - 5월 충남의 무역수지는 19억64백만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됨으로써 지난달에 비해 무역수지 증가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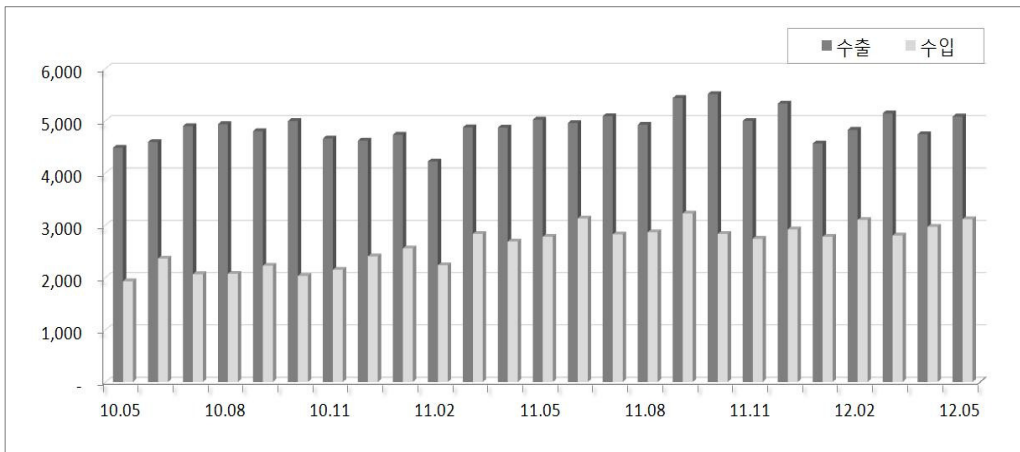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5월	2월	3월 ^P	4월 ^P	5월 ^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출	47,331	46,319	47,339	46,134	47,052	12.0	3.2
	수입	45,285	44,972	45,000	44,060	44,796	44.3	3.5
	무역수지	2,046	1,347	2,339	2,074	2,256	-	-
충남	수출	5,022	4,826	5,140	4,743	5,081	1.2	7.1
	수입	2,781	3,102	2,804	2,971	3,117	12.1	4.9
	무역수지	2,241	1,724	2,336	1,772	1,964	-	-

자료 : 지역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5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¹⁾	수출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출총액	5,081	1.2	7.1	100.0
1	반도체	1,335	-10.6	15.1	26.3
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50	-20.6	4.9	18.7
3	석유제품	446	-2.7	-15.4	8.8
4	전자응용기기	372	136.1	36.3	7.3
5	자동차부품	240	12.0	23.1	4.7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5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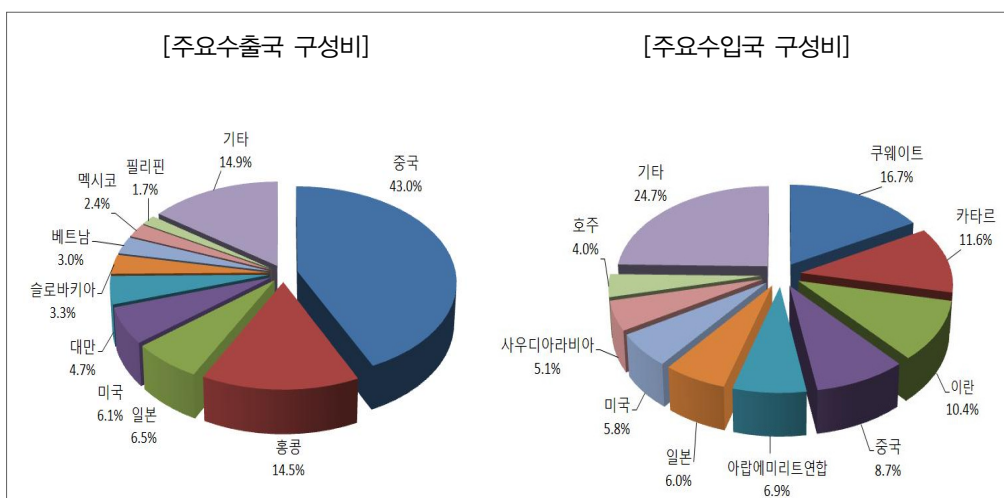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¹⁾	수입액	증 감 율		수입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입총액	3,117	12.1	4.9	100.0
1	원유	1,535	32.9	10.2	49.2
2	석유제품	423	11.1	19.5	13.6
3	석탄	229	-23.2	8.0	7.3
4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65	56.3	12.1	2.1
5	정밀화학원료	62	35.8	29.2	2.0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5월 국가별 수출입 현황



자료 : 지역의 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5. 고 용

[경제활동인구]

- 5월 충남의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15세이상인구는 1,706천명으로 전년동월(1,638천명)보다 68천명(+4.2%)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113천명으로 전년동월(1,064천명)보다 49천명(+4.6%)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5.3%로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 0.3%p, 전월대비 0.7%p 각각 증가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량)	
		5월	2월	3월	4월	5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경제 활동 인구	전국	25,480	24,825	25,210	25,653	25,939	0.6	1.0
	충남	1,064	975	1,041	1,097	1,113	0.5	1.1
	남자	628	592	622	648	654	-0.6	0.3
	여자	436	383	419	448	459	1.7	2.1
경제 활동 참가율	전국	62.1	60.0	60.9	61.9	62.5	0.4	0.6
	충남	65.0	58.0	61.7	64.6	65.3	0.3	0.7
	남자	77.6	71.1	74.2	76.9	77.1	-0.5	0.2
	여자	52.7	45.2	49.3	52.5	53.6	0.9	1.1

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취업자]

- 5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1,09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 전월대비 2.3% 각각 증가하여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청년층 취업자는 150천명, 고령층 취업자는 315천명으로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과 동일하며, 고령층 취업자는 20천명(+6.8%) 증가
-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증가세를 나타냄
 - 농림어업 188천명(-8.9%)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반면, 광공업 209천명(+4.0%), 건설업 70천명(+11.1%), 도소매·음식숙박업 199천명(+15.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30천명(+8.1%)으로 대부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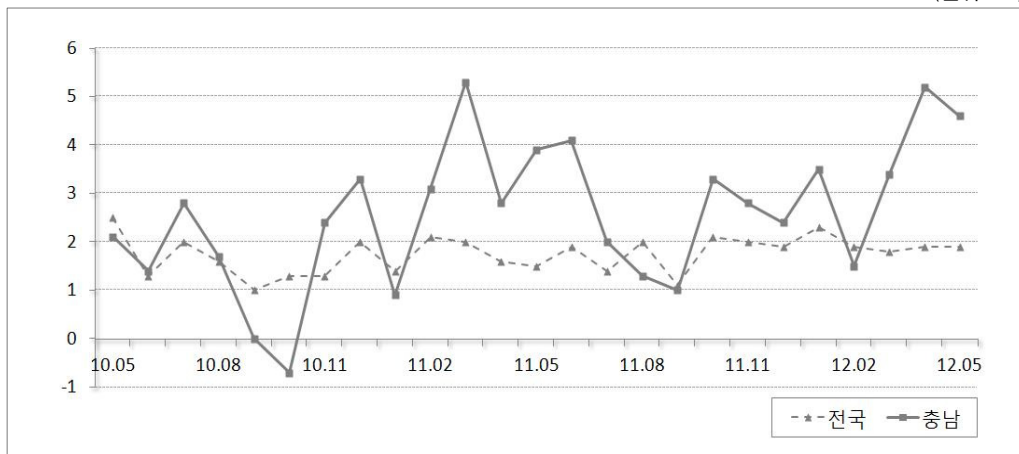
연령별·산업별 취업자 동향

(단위: 천명,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5월	2월	3월	4월	5월	전년 동월비	전월비	
합계	전 국	24,661	23,783	24,265	24,758	25,133	1.9	1.5	
	충 남	1,046	938	1,015	1,069	1,094	4.6	2.3	
청년층 (15~29세)	전 국	3,930	3,862	3,818	3,857	3,911	-0.5	1.4	
	충 남	150	150	155	159	150	0.0	-5.7	
고령층 (55세이상)	전 국	5152	4,692	5,075	5,399	5,617	9.0	4.0	
	충 남	295	213	264	301	315	6.8	4.7	
	55~59세	91	85	95	200	99	8.8	-50.5	
	60세이상	204	128	169	201	216	5.9	7.5	
산업별	농림어업	206	82	136	176	188	-8.9	6.4	
	광공업	201	208	205	203	209	4.0	2.7	
	건설업	63	63	67	70	70	11.1	-0.4	
	도소매 음식숙박업	173	191	191	192	199	15.1	3.7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305	296	319	332	330	8.1	-0.9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99	98	98	96	99	0.4	3.7	

취업자 증감률 추이

(단위: %)



자료: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5월 충남의 실업자는 2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8%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1.8%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전월대비 0.7%p 하락

6. 금 용

[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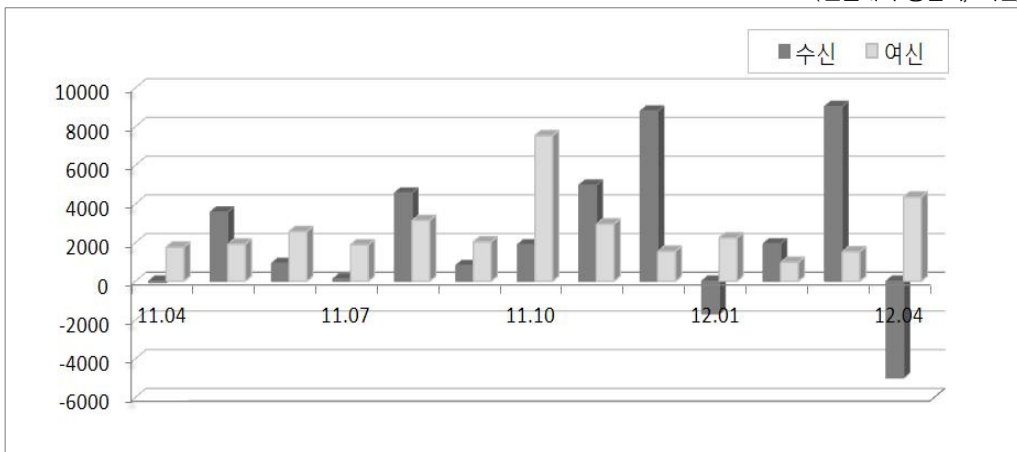
- 4월중 충남의 수신잔액은 예금은행 17조 1,814억원, 비은행기관 30조 45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수신잔액은 47조 1,859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지자체 및 일부 대기업 자금이 요구불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에서 인출되면서 예금은행 수신 큰 폭으로 감소 [3월 +6,741억원 → 4월 -5,904억원]
 - 비은행기관 : 저축은행은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월에 이어 감소하였으며, 신용협동조합은 상대적인 금리경쟁력 약화 등으로 비은행기관 수신 증가폭 축소 [3월 +2,291억원 → 4월 +718억원]
 - 총 수신증감액 : 3월 +9,032억원 → 4월 -5,186억원

[여신]

- 4월중 충남의 여신잔액은 예금은행 25조 943억원, 비은행기관 16조 5,888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여신잔액은 41조 6,831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기업대출은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세금납부 수요, 가계대출은 세종시 등의 주택관련 대출과 신용대출이 늘어나면서 예금은행 여신 증가폭 확대 [3월 +1,178억원 → 4월 +3,230억원]
 - 비은행기관 : 상호금융은 영농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도 증가하여 비은행기관 여신 증가폭 확대 [3월 +342억원 → 4월 +1,114억원]
 - 총 여신증감액 : 3월 +1,520억원 → 4월 +4,344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억원)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어음부도]

- 4월 충남의 부도율은 0.20%로, 전월대비 0.07%p 상승
 - 지역별로는 천안 0.20%, 홍성 0.00%, 계룡 0.44%, 공주 0.14%, 당진 1.15%, 아산 0.06%의 부도율을 나타냄

충남지역 어음부도율

(단위 : %, %p)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연중	4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충 남	0.31	0.10	0.18	0.15	0.13	0.20	0.07	0.10
천 안	0.47	0.17	0.21	0.23	0.34	0.20	-0.14	0.03
홍 성	0.26	0.10	0.00	0.00	0.05	0.00	-0.05	-0.10
계 룡	-	-	0.00	0.00	0.00	0.44	0.44	-
공 주	0.57	.00	0.00	0.00	0.00	0.14	0.14	0.14
당 진	-	-	0.00	0.01	0.01	1.15	1.14	-
아 산	-	-	0.85	0.45	0.04	0.06	0.02	-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4월 중 부도금액은 28억 1천만원으로 전월보다 10억 7천만원 증가
 - 제 조 업 : 3월 4억 8천만원 → 4월 18억 5천만원
 - 건 설 업 : 3월 11억 1천만원 → 4월 8억 1천만원
 - 서비스업 : 3월 4천만원 → 4월 5천만원
- 4월 중 부도업체수는 0개로 전월(2개)보다 2개 감소

업종별 부도금액 및 부도업체수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4월	1월	2월	3월	4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부 도 금 액	제조업	8.2	4.7	8.6	4.8	18.5	10.3	13.7
	건설업	0.0	3.1	1.5	11.1	8.1	8.1	-3.0
	서비스업	3.5	8.7	5.5	0.4	0.5	-3.0	0.1
	기타	0.1	6.6	5.6	1.1	1.0	0.9	-0.1
	합계	11.8	23.2	21.2	17.4	28.1	16.3	10.7
부 도 업 체 수	제조업	0	0	1	0	0	0	0
	건설업	0	0	0	1	0	0	-1
	서비스업	1	0	2	1	0	-1	-1
	기타	0	0	0	0	0	0	0
	합계	1	0	3	2	0	-1	-2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신설법인수]

- 4월 충남의 신설법인수는 206개로 전월(226개)보다 20개 감소

7. 건설 ·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5월 충남의 건축허가면적은 827,663㎡로 전년동월대비 14.3%, 전월대비 1.4% 각각 증가
- 5월 허가면적 구성비 : 주거용(46.8%), 상업용(18.7%), 농수산용(15.7%)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5월	2월	3월	4월	5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723,947	714,587	1,165,607	816,592	827,663	14.3	1.4	
주거용	207,651	292,420	623,111	413,892	258,003	24.2	-37.7	
상업용	125,688	86,411	166,862	135,778	184,696	46.9	36.0	
농수산용	49,716	83,893	49,569	66,201	54,386	9.4	-17.8	
공업용	182,288	58,588	121,438	106,920	132,482	-27.3	23.9	
기 타	158,604	142,990	204,627	93,800	198,096	24.9	111.2	

자료 : 충청남도

- 5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595,332㎡로 전년동월대비 15.0%, 전월대비 45.1% 각각 감소
- 5월 착공면적 구성비 : 주거용(46.8%), 상업용(18.7%), 공업용(15.7%)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5월	2월	3월	4월	5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700,162	1,023,484	824,197	1,083,638	595,332	-15.0	-45.1	
주거용	157,476	589,382	336,579	565,524	278,807	77.0	-50.7	
상업용	189,697	71,993	191,815	100,108	111,039	-41.5	10.9	
농수산용	44,384	43,546	565,686	71,036	66,796	50.5	-6.0	
공업용	212,889	133,368	105,952	86,369	93,329	-56.2	8.1	
기 타	95,716	185,195	134,165	260,601	45,361	-52.6	-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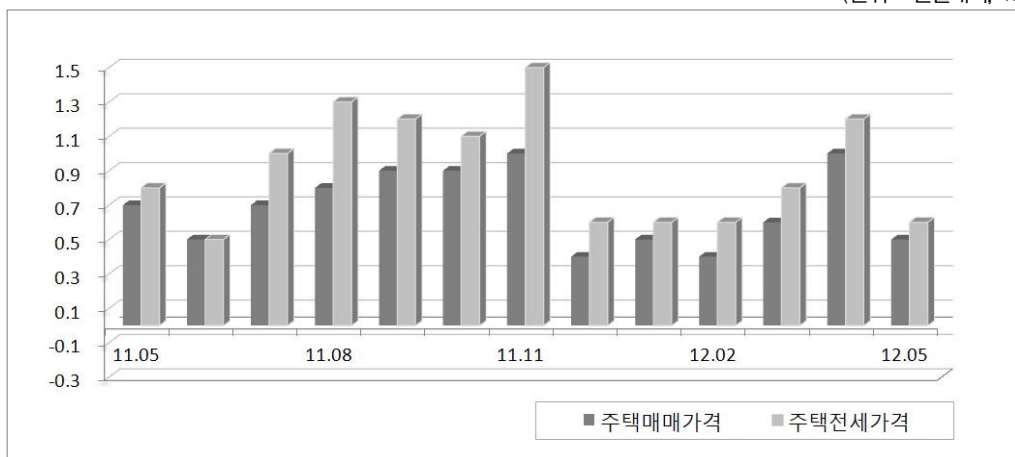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5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8.0으로 전년동월대비 8.5%, 전월대비 0.5% 각각 상승
 - 천안지역의 삼성전자 등 근로자 실수요와 외부 투자 수요가 증가하여 상승세 지속
 - 매매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천안 서북구(+0.7%), 아산(+0.5%) 지역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상승
- 5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11.0으로 전년동월대비 11.5%, 전월대비 0.6% 각각 상승
 - 천안지역의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근로자 수요와 기존 실수요자 수요 등이 꾸준하나 물량부족으로 상승세 지속
 - 전세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천안 서북구(+0.9%), 아산(+0.8%) 지역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상승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률

(단위 : 전월대비, %)



자료 : 월별 주택 가격동향, 국민은행

[토지거래]

- 4월 충남의 토지거래는 15,02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전월대비 6.3% 증가
 - 토지거래 면적은 14,986천㎡로 전년동월대비 15.7%, 전월대비 20.8% 각각 감소

토지거래

(단위 : 건, 천㎡,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4월	1월	2월	3월	4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필지	15,100	10,698	13,779	14,128	15,022	-0.5	6.3
면적	17,769	12,517	14,206	18,932	14,986	-15.7	-20.8

자료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통계, 국토해양부

해외 경제 동향(요약)



- 해외 경제는 미국 등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지속
- 반면 신흥국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스페인 은행부실 우려, 주유국 선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등 유로존 불안 확대

미국

-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고용사정 개선추세가 다소 약화
-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도움되고 있으며 개인소비지출이 견조한 증가세 유지

중국

-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산업생산·소매판매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성장세 둔화
- 지난해 높은 수준을 보였던 소비자물가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일본

- 1분기 GDP가 내수호조 등으로 전기대비 1.0% 성장하였음
-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높은 국가부채 수준에 대한 우려로 국가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Fitch, 5.22)

유로지역

- 1분기 성장률이 0%로 정체되면서 경기부진 지속
- 3월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3~4월 실업률이 '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1. 미 국

- 미국 경제는 2012년 1/4분기 성장률 1.9%(전분기대비)를 나타냄
- 4월 미국의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증가
 - 4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1%, 소매판매액 역시 0.1% 각각 증가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3%, 생산자물가는 1.9% 각각 증가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12월부터 둔화되고 있음
- 실업률은 8.1%를 나타내며 전월보다 0.1%p 하락
 -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폭 축소되고 실업률 하락
 - 실업률은 '09.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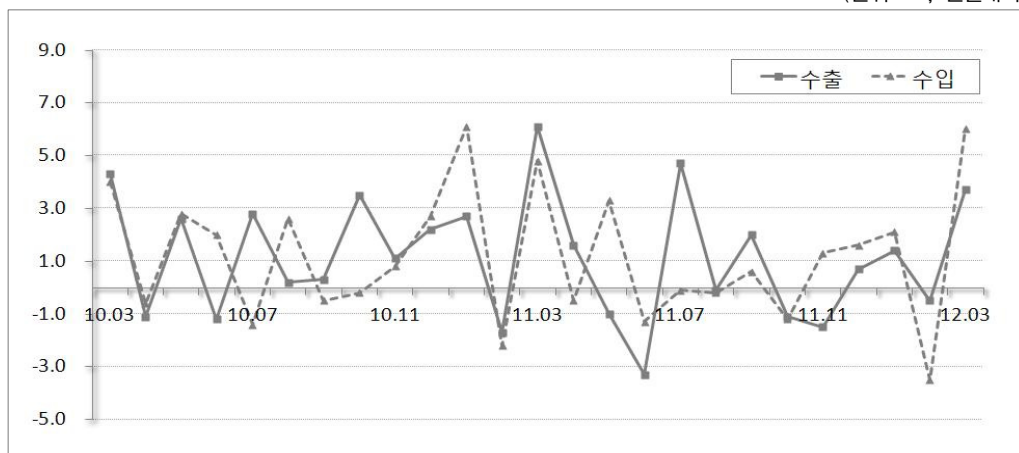
(단위 : %, 전월대비)

구분	2011년			2012년			
	연간	11월	12월	1월	2월 ^P	3월 ^P	4월 ^P
산업생산	4.1	0.2	0.8	0.6	0.4	-0.6	1.1
소매판매	7.9	0.5	0.0	0.6	1.0	0.7	0.1
물가 ¹⁾	생산자 ²⁾	6.0	5.6	4.7	4.1	3.3	2.8
	소비자	3.2	3.4	3.0	2.9	2.9	2.7
무역	수 출	16.2	-1.5	0.7	1.4	-0.5	3.7
	수 입	15.6	1.3	1.6	2.1	-3.5	6.0
실업률 ³⁾	9.0	8.7	8.5	8.3	8.3	8.2	8.1
주가지수 ⁴⁾	12,217.6	12,045.7	12,217.6	12,632.9	12,952.0	13,212.0	13,213.6

주 : 1) 전년동월대비 2) 최종재 기준 3) 군인 제외,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4) 다우존스 공업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2.6), 기획재정부 / 지역경제동향(2012.5), 한국은행

미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월대비)



2. 중 국

- 중국 경제는 2012년 1/4분기 성장률 8.1%(전년동기대비)를 나타냄
- 4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3% 증가
 - 4월 산업생산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이 다소 축소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4% 증가,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7% 감소
 -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를 나타내어 증가세가 다소 축소됨
 - 생산자물가는 11월부터 상승폭이 축소되다 3월부터 감소세로 반전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9%,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0.3% 각각 증가
 - 2월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하나 그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음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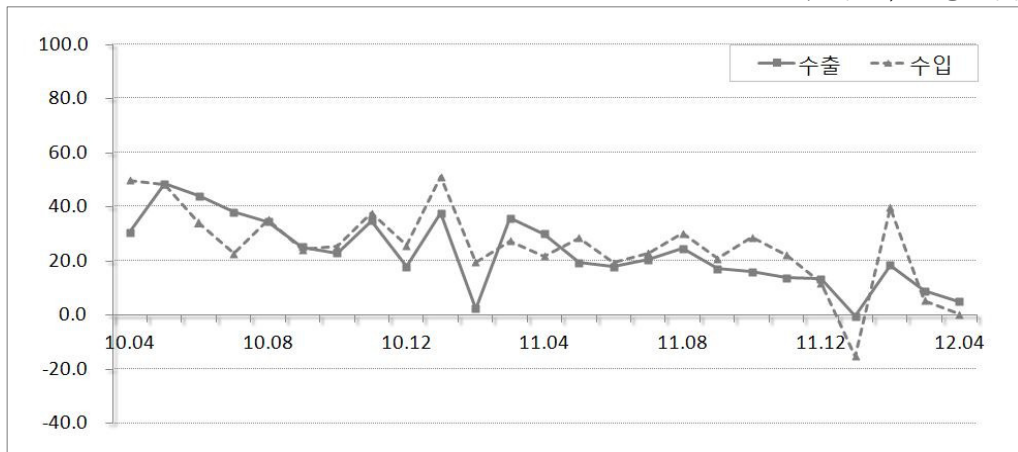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연간	11월	12월	1월	2월 ^P	3월 ^P	4월 ^P
산업생산		13.9	12.4	12.8	－	11.4	11.9	9.3
소매판매		17.1	17.3	18.1	－	14.7	15.2	14.1
물가	생산자	6.0	2.7	1.7	0.7	0.0	－0.3	－0.7
	소비자	5.4	4.2	4.1	4.5	3.2	3.6	3.4
무역	수 출	20.7	13.8	13.4	－0.5	18.4	8.9	4.9
	수 입	25.3	22.1	11.8	－15.3	39.6	5.3	0.3
주가지수 ¹⁾		2,199.42	2,333.41	2,199.42	2,292.61	2,428.49	2,262.79	2,396.32

주 : 1)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2.6), 기획재정부 / 지역경제동향(2012.5), 한국은행

중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3. 일본

- 일본 경제는 2012년 1/4분기 성장률 1.0%(전기대비)를 나타냄
- 4월 수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에 비해 확대됨
- 4월 일본의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0.2% 증가, 소매판매 전년동월대비 5.8% 증가
- 4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0.4% 상승
 -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감
- 실업률은 4.6%를 나타내며 전월에 이어 증가세 지속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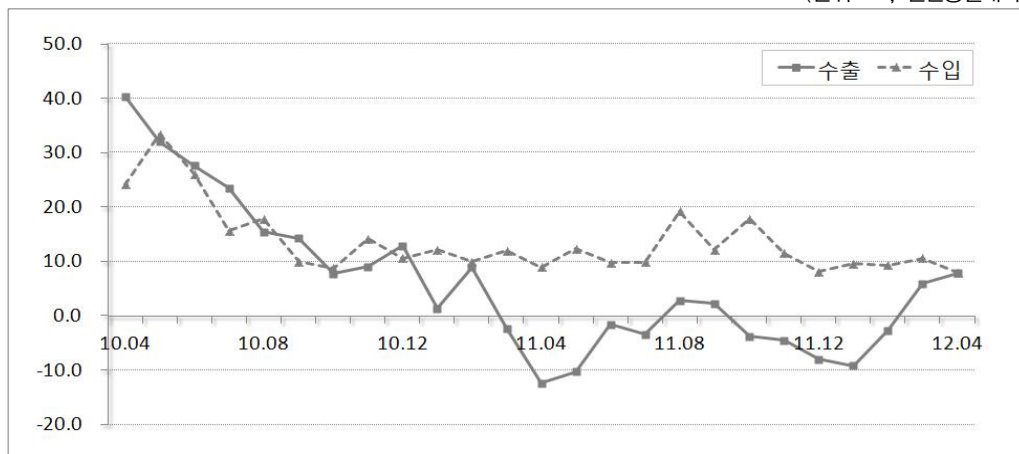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연간	11월	12월	1월	2월 ^P	3월 ^P	4월 ^P
산업생산 ¹⁾		-3.5	-2.7	3.8	1.9	-1.2	1.3	0.2
소매판매		-1.2	-2.2	2.5	1.8	3.5	10.3	5.8
물가	생산자	2.0	1.6	1.1	0.5	0.6	0.5	-0.2
	소비자 ²⁾	-0.3	-0.5	-0.2	0.1	0.3	0.5	0.4
무역	수 출	-2.7	-4.5	-8.0	-9.2	-2.7	5.9	7.9
	수 입	12.0	11.5	8.1	9.6	9.3	10.6	8.0
실업률 ³⁾		4.6	4.5	4.5	4.6	4.5	4.5	4.6
주가지수 ⁴⁾		8,455	8,435	8,455	8,803	9,723	-	-

주 : 1) 전월대비, 광공업, 2005=100 2) 2005=100 3)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4) 일경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2.6), 기획재정부 / 지역경제동향(2012.5), 한국은행.

일본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4. 유로지역

- 유로지역 경제는 2012년 1/4분기 성장률 0.0%(전기대비)를 나타냄
- 산업생산은 감소세로 전환, 소매판매는 증가세로 전환하였음
- 3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감소
 - 제조업수주가 감소하고 경제주체의 심리지표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등 부진한 모습 지속
- 실업률은 10.9%를 나타냄
 - 실업률은 10.9%로 전월에 이어 유로화 도입 이후 최고치를 경신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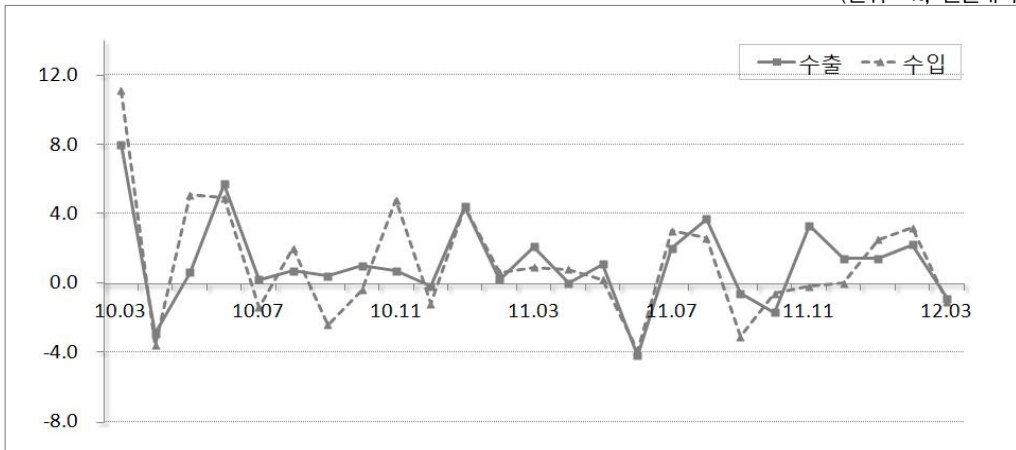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연간	11월	12월	1월	2월 ^P	3월 ^P	4월 ^P
산업생산 ¹⁾	3.6	-0.4	-1.0	0.0	0.8	-0.3	-
소매판매	-0.6	-0.2	-1.3	1.1	-0.1	0.6	-
물가 ²⁾	생산자	5.9	5.4	4.3	3.8	3.6	-
	소비자	2.7	3.0	2.7	2.7	2.7	2.6
무역	수 출	13.3	3.3	1.4	1.4	2.2	-0.9
	수 입	12.8	-0.2	0.0	2.5	3.2	-1.1
실업률 ³⁾	10.2	10.6	10.6	10.8	10.8	10.9	-
주가지수 ⁴⁾	2,316.6	2,330.4	2,316.6	2,416.7	2,512.1	2,477.3	2,306.4

주 : 1) 전산업(건설업 제외) 2) 생산자물가는 건설업 제외,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기준 3) ILO 기준,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4)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2.6), 기획재정부 / 지역경제동향(2012.5), 한국은행.

유로지역의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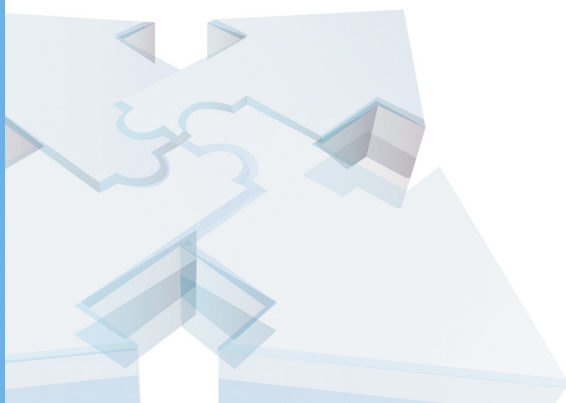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단위 : %, 전월대비)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12.5.11] 2012년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대상 모집

- 성장가능성이 큰 도내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연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관리하기 위한 ‘유망중소기업’ 선정대상 업체 (5월중) 모집
 - 선정규모 30개 업체 안팎으로 도내 3년이상 가동중인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 5. 15 ~ 25일 신청·접수, 6. 5일 시장·군수 예비심사(1차) 추천,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 중소기업지원기관 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7월중 최종확정 예정
 - 선정업체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 금리 1% 추가우대,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 등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우선지원 등

['12.5.13]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2차 공모

- 제2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 시·군에서 18일까지 접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선정
 - 공모신청 희망기업은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이익재분배 등 4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 지정업체에는 도의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참여 자격이 주어지며, 무료 경영 컨설팅, 제품 우선구매 홍보 지원, 제품전시회, 각종 판촉행사 참여 기회 등 행·재정적 지원 예정

['12.5.14] 유망 자동차부품업체 3개사 투자유치협약 체결

- 14일 안영구 유니크 회장, 이효민 진일테크 대표 이사, 이제문 동보공업 대표이사, 최승우 예산군수 등과 투자유치협약(MOU) 체결
 - 주요내용은 유니크는 2014년까지 192억원을 투입, 예산 일반산업단지 내 3만8,380㎡의 부지에 제4공장을 설립, 진일테크는 2015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해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내 1만6,603㎡의 부지에 본사 및 자동차 부품 도금 공장을 이전 설립, 동보공업 역시 2015년까지 56억원을 투자, 예당일반산업단지 내 1만6,531㎡의 부지에 본사 및 선바이저 등 생산공장을 건립할 계획
- 이번 MOU 체결로 향후 4년간 48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전국 890억원)와 고용창출 550명(전국 1,495명), 20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전국 348억원) 기대

['12.5.15] 협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설명회 개최

- 특임장관실(장관 고흥길)은 15일 도청 대강당에서 협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
 - 설명회는 협동조합법에 대한 이해 확산과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을 돕기 위해 ▲사회적 경제 흐름과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협동조합 운동 전개과정 이해 ▲협동조합간 연대 및 지역연계 방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

['12.5.15] 과학벨트 인프라 구축사업 착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에 입지가 확정된 지 1주년을 맞아 천안 등 3개 기능 지구에 거점지구의 연구결과에 대한 산업화 및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총 5조 1,700억원을 투자, 그 중 기능지구에는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총 3,040억원의 국비를 투자해 과학기술의 융복합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사이언스 비즈플라자(Science-Biz Plaza) 조성 등을 시행 예정으로 사업주체인 천안시의 용역이 완료돼 조만간 입지지역을 선정해 올 하반기에는 설계 착수할 계획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은 ▲기업이나 연구소가 시행하는 기초연구 성과에 대한 후속R&D 지원(1과제당 연간 3억원)사업이 오는 5월25일까지 대덕 과학특구에서 공모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있는 유망중소·벤처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2천억원 규모의 과학벨트 투자펀드를 조성 중에 있고 ▲기능지구 내 대학교에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과정(석사과정 과정 당 연 5억원 지원)을 2013년 1학기 개강 목표로 하반기에 선정할 예정

['12.5.16]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및 공공구매상담회 개최

- 아산시 온양관광호텔에서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및 공공구매상담회'를 개최
-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우수기술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 부족 등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 본청실과 및 사업소, 정부투자기관, 유관기관, 시·군 등 32기관의 구매·계약·사업발주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
 -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은 공공구매제도 안내, 조달등록 방법, 바이어 상담요령 등으로 진행
 - 공공구매상담회에는 (주)태광타이어, (주)GNC bio, (주)누리켄, (주)동양이엔피, (주)무궁화엘앤비 등 중소기업 55업체가 참여해 제품 전시 및 홍보 활동을 개최, 구매·계약·설계 담당자와 참가 중소기업간 1:1 제품설명 및 구매 상담까지 이뤄져 실제 제품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

['12.5.17] 일본에서 6천7백만 달러 투자유치

- ‘소수 정예 실무 투자유치사절단’을 구성해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집중적으로 일본 도쿄 등을 순회하며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 사절단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 ‘아드반테스트’사에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3천만달러, ‘후지필름’사와 2천만달러 상당의 전자재료 공장운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16일에는 마쓰야마로 이동해 산업용보일러를 생산하는 ‘미우라’사와 1천7백만달러의 투자유치를 성사

['12.5.18] 충남 서해안권 관광개발에 1조 3,472억 투입

- 충남 서해안에 오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1조 3,472억원을 투입하는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변경·확정됨에 따라 서해안권 관광개발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가 충남, 경기, 전북, 전남 등 서해안 4개 道, 20개 시·군(9,269km²)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사업계획」을 중간평가용역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대상사업, 사업기간 등을 일부 변경·확정
- 서해안권 관광개발 총 사업비 규모는 당초 4조 967억원(국비 2,588억원, 지방비 5,418억원, 민자 3조 2,961억원)에서 투자가 불확실한 민자 1조 8,243억원 등 2조 420억원을 축소한 2조 547억원(국비 2,483억원, 지방비 3,346억원, 민자 1조 4,718억원)으로 확정
 - 사업수는 24개(거점 2, 연계 3, 전략 19) 사업으로 당초 23개 사업에서 1개 사업이 늘었으며 계획에 새로이 반영된 신규사업은 ▲당진 삼교호 호수공원 조성(캠핑장, 수변무대 등) 30억원 ▲홍성 임해관광도로 생태녹색단지 조성(야생화 단지 등) 30억원 ▲보령 대천 해수욕장 피어(친수 공간 조성) 100억원

['12.5.22] 상반기 문화체육 관광분야 ‘중앙 공모’ 18개 사업 184억 선정

- 중앙 공모사업에 ‘문화의 달’ 등 18개 사업 184억원(지방비 포함)이 선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 중
 - 선정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문화예술분야 8개 사업 25억원 ▲체육분야 6개 사업 124억원 ▲관광분야 4개 사업 35억원 등
 - 주요 사업 및 예산은 ▲2012년 문화의 달 행사 10억원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30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100억원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2억원 ▲사진찍기 좋은 녹색 명소 조성 1억6,000만원 등

['12.5.29] 중소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노하우 공유

- 천안에 위치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전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
-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마케팅력 향상을 돕고, 수출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각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파악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 시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교육 및 간담회는 특강과 도의 통상 지원시책 설명, 수출 기업인과의 대화 등의 순으로 개최

['12.5.30] 제4차 충청권 경제포럼

- 충청권 상생발전과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제4차 충청권 경제포럼’이 30일 천안에 위치한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
 -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이희평 충남경제포럼·손종현 대전경제포럼·이상훈 충북경제포럼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은 기조연설과 공동건의문 채택,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
- 충청권 산업정책 및 지방은행 설립 등을 논의하고 세종시 성공정착을 위한 공동건의문도 채택 ▲정부 부처 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추진 ▲세종시와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장·단기 협력과제 수립 추진 등 세종시 성공정착과 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 부처 및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12.6.7] 산학연 기술개발·부설·연구·설치 18억 지원

- 기술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인력 지원을 위한 이번 사업은 도내 23개 대학 87개 업체를 대상 올해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사업 및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에 18억원 지원 예정
 -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사업 일반 26개 과제에는 4억6,300만원을, 22개 창업과제에는 3억7,100만원을 지원 계획
 - 정부지원 R&D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신설한 ‘첫걸음 R&D 사업’에는 총 사업비의 36%인 4억6,500만원을 투입예정
 - 5억원을 투자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은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 부설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사업

['12.6.8] 농수산물유통공사와 MOU 체결

- 지사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재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과 업무협력 MOU를 체결
 -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 도내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와 유통 개선,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농림축수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농수산물식품 가공·유통·수출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정보 교류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에 상호 협력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사업 정보교류 및 협력 ▲충남도의 해외 통상 주재관과 aT 해외지사간 협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함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 경제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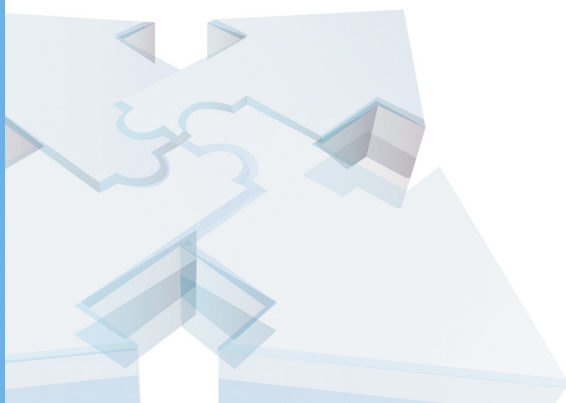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SERI경제포커스) : <http://www.seri.org>
 - 글로벌 자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얀마
 - 글로벌 기업의 지속성장 전략
 -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매장전략
 - 2012년 2/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 무형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 다문화정책 : 동화에서 융화로
 - IT업계 숨은 거인, 홍하이
 - 영국경제의 더블딥과 향후 전망
- 현대경제연구소 : <http://hri.co.kr>
 - 금융위기 이후 주택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 미래 주택시장의 5대 트렌드
 - 한반도 평화지수 2012년 2분기 최저점으로 하락
 - 소비의 장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 차세대 주력 산업의 다섯 가지 조건
 - 바람과 인내의 나라, 몽골경제의 두 얼굴
- LG경제연구소 : <http://www.lgeri.com>
 - LTE시대, 무엇이 달라졌나
 - 수요저변 확대를 위한 TV의 다이어트 바람
 - K-컨슈머리포트, 고객 신뢰 얻는 채널 될 수 있다
 - 산업혁신 정책이 선진국 진입 앞당긴다
 - 인도, 외국인 투자에 더 엄한 잣대
 - 부호들의 부침으로 본 중국 경제
 - 유로존 위기 다시 안개 속으로
 - 성장과 고용창출의 동력 제조업의 재조명
- 한국금융연구원 : <http://www.kif.re.kr>
 - 보험소비자 가용정보 현황과 과제
 - 한국경제의 통화수요, 통화정책 및 환율결정 : 공적분VAR모형에 의한 분석
 - 우리나라 금융부티크 현황 및 과제
-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신흥국 교역구조의 변화 : 요인분석 및 시사점
 - 주요국의 고용사정
- 대한상공회의소 : <http://www.korcham.net>
 - 일자리창출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2012년 세제개선과제 종합건의
 -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 지주회사에 애로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조사
 - 산업계의 IT활용 실태와 향후과제 조사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6	2007	2008	2009	2010
국내총생산 (GDP) ¹⁾	억원	9,087,438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28,034
국민총소득 (GNI) ¹⁾	억원	9,101,342	9,768,139	10,341,154	10,697,831	11,731,234
1인당 GNI ¹⁾	억원	1,884	2,016	2,128	2,195	2,400
경제성장률 ²⁾	%	5.2	5.1	2.3	0.3	6.2
산업구조						
농림어업	%	3.2	2.9	2.7	2.8	2.6
광공업		27.4	27.5	28.1	28.0	30.8
전기가스·수도사업		2.3	2.2	1.3	1.8	2.0
건설업		7.5	7.4	7.0	6.9	6.5
서비스업 및 기타		59.7	60.0	60.8	60.4	58.2
제조업 평균가동률	%	80.1	80.3	77.6	74.4	81.2
취업자	천명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농림어업	%	7.7	7.4	7.2	7.0	6.6
광공업		17.6	17.2	16.9	16.4	17.0
건설업		7.9	7.9	7.7	7.3	7.4
서비스업 및 기타		66.5	67.2	67.9	69.3	69.1
실업률	%	3.5	3.2	3.2	3.6	3.7
경상수지		14,083	21,770	3,198	32,791	28,214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1,433	37,129	5,170	37,866	41,904
서비스수지		△13,332	△11,967	△5,734	△6,641	△11,229
소득수지		75	135	4,435	2,277	768
경상이전수지		△4,092	△3,527	△674	△712	△3,229
수출액	억달러	3,254	3,715	4,220	3,635	4,664
수입액		3,094	3,568	4,353	3,231	4,252
총저축률	%	30.8	30.8	30.5	30.2	32.0
민간비중	%	20.8	20.2	21.2	23.4	25.2
정부비중		10.0	10.6	9.3	6.8	6.8
총자본형성	십억원	268,216	277,729	277,773	240,412	277,460
최종소비지출	%	69.0	69.1	70.0	70.1	67.8
민간비중	%	54.5	54.4	54.7	54.1	52.5
정부비중		14.5	14.7	15.3	16.0	15.4
생산자물가상승률	%	0.9	1.4	8.6	-0.2	3.8
소비자물가상승률	%	2.2	2.5	4.7	2.8	2.9

주 : 1) 당해년 가격. 2) 실질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일일경제지표 (2012.6.1기준)

금리

구 분	'10말	'11말	12.4말	5.30	5.31	6.1	전일비	'11말비
콜금리(1일),%	2.49	3.27	3.26	3.26	3.26	3.27	0.01	0.00
CD(91일),%	2.80	3.55	3.54	3.54	3.54	3.54	0.00	△0.01
국고채(3년),%	3.38	3.34	3.45	3.35	3.32	3.30	△0.02	△0.04
국고채(5년),%	4.08	3.46	3.56	3.47	3.43	3.39	△0.04	△0.07
회사채(3년, AA-),%	4.27	4.21	4.14	3.95	3.92	3.90	△0.02	△0.31
외국인채무순매수상장액원	638,134	410,274	11,238	2,691	△100	1,682	1,782	-

※ '10말('10.1.1~12.31), '11말('11.1.1~12.31), '12.4말('12.4.1~4.30),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주가

구 분	'10말	'11말	12.4말	5.30	5.31	6.1	전일비	'11말비
KOSPI지수	2,051.00	1,825.74	1,981.99	1,844.86	1,843.47	1,834.51	△0.49%	0.48%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53,969	36,321	63,604	39,178	46,606	35,009	△11,597	-
KOSDAQ지수	510.69	500.18	478.89	469.62	471.94	472.13	0.04%	△5.61%
외국인 순매수액원(가산)	228,939	△95,731	△5,957	1,489	116	△2,552	△2,668	-

※ 기간중 : '10말('10.1.1~12.31), '11말('11.1.1~12.31), '12.4말('12.4.1~4.30),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환율

구 분	'10말	'11말	12.4말	5.30	5.31	6.1	전일비	'11말비
₩/US\$	1,134.80	1,151.80	1,130.00	1,176.30	1,180.30	1,177.70	△0.22	2.25
선물환(NDF, 1월물)	1,137.00	1,154.70	1,132.70	1,178.90	1,183.00	1,180.30	△0.23	2.22
₩/CNY	170.43	182.29	179.97	185.00	185.36	184.85	△0.28	1.40
₩/EUR	1,501.68	1,488.93	1,497.14	1,466.73	1,462.63	1,455.64	△0.48	△2.24
₩/¥100	1,393.59	1,481.22	1,410.38	1,480.55	1,498.41	1,501.02	0.17	1.34
¥/US\$	81.43	77.76	80.12	79.45	78.77	78.46	△0.39	0.90
US\$/EUR	1,3233	1,2927	1,3249	1,2469	1,2392	1,2360	△0.26	△4.39
CNY/US\$	6,6100	6,3248	6,3102	6,3557	6,3754	6,3685	△0.11	0.69

※ '11년 평균 환율 : (₩/US\$) 1,108.8원 (₩/¥100) 1,388.2원 ※ '12년 평균 환율('12.1.1~현재) : (₩/US\$) 1,137.6원 (₩/¥100) 1,427.1원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10말	'11말	12.4말	5.30	5.31	6.1	전일비	'11말비
LIBOR(Dollar, 3월, %)	0.30	0.58	0.47	0.47	0.47	0.47	0.00	△0.11
T/NOTE(10년물)	3.29	1.88	1.92	1.75	1.56	1.46	△0.11	△0.43
DOW	11,578	12,218	13,124	12,420	12,393	12,119	△0.22%	△0.81%
NIKKEI	10,229	8,455	9,521	8,633	8,543	8,440	△1.20%	△0.18%
*SANGHAI COMP	2,808	2,199	2,396	2,385	2,372	2,373	0.05%	7.91%
외평채가산금리(10.2013년물)	175	165	104	113	114	114	0	△51
CDS(5년, bp)	95	161	121	143	142	148	6	△13
CRS(1년, %)	1.43	2.05	2.54	2.21	2.19	2.16	△0.03	0.11

유가 · 곡물 · 원자재

구 분	'10말	'11말	12.4말	5.30	5.31	6.1	전일비	'11말비
DUBAI (\$/배럴)	88.80	104.89	116.38	105.01	103.39	101.59	△1.80	△3.30
WTI 선물 (\$/배럴)	94.84	98.83	104.87	90.76	87.82	86.53	△1.29	△12.30
Brent 선물 (\$/배럴)	94.75	107.38	119.47	106.68	103.47	101.87	△1.60	△5.51
원당 (센트/파운드)	32.12	23.3	21.12	19.53	19.48	19.42	△0.31%	△16.65%
밀 (센트/부셀)	794	653	655	657	654	644	△1.53%	△1.38%
대두 (센트/부셀)	1,403	1,208	1,506	1,387	1,373	1,340	△2.42%	10.95%
옥수수 (센트/부셀)	629	647	634	563	560	555	△0.76%	△14.11%
동 (\$/톤)	9,665	7,570	8,377	7,677	7,546	7,499	△0.62%	△0.94%
알루미늄 (\$/톤)	2,468	1,992	2,098	2,020	1,997	2,014	0.85%	1.10%

※ '11년 평균 유가 : (Dubai) 105.98\$, (WTI) 95.14\$. ※ '12년 평균 유가('12.1.1~현재) : (Dubai) 114.65\$, (WTI) 101.42\$.

자료 : 일일경제지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o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513,613	551,484	579,740	651,338	744,444
전국대비 구성비 ¹⁾	%	5.63	5.61	5.64	6.11	6.33
GRDP 성장률 ²⁾	%	12.6	7.6	7.0	8.9	13.4
1인당 GRDP	천원	26,637	28,482	29,826	33,381	38,010
산업구조 ³⁾	—					
농림어업	%	7.6	6.7	6.3	5.7	5.2
광공업		44.7	45.9	47.0	51.0	54.0
전기가스수도업		3.9	4.4	2.5	3.4	3.6
건설업		9.3	8.7	9.3	8.1	7.8
서비스업 및 기타		34.4	34.5	34.9	31.7	29.5
15세이상인구	천명	1,517	1,547	1,564	1,588	1,613
경제활동인구	천명	991	1,021	996	991	1,003
취업자	천명	967	998	973	961	974
농림어업	%	23.6	21.9	19.5	18.8	16.8
광공업		15.5	17.0	17.4	17.1	19.0
건설업		5.8	6.6	5.7	5.8	5.6
서비스업 및 기타		55.1	54.5	57.3	58.3	58.5
실업자	천명	24	23	24	29	29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6	526	568	597	610
경제활동참가율	%	65.3	66.0	63.7	62.4	62.2
실업률	%	2.4	2.2	2.4	3.0	2.9
고용률	%	63.8	64.5	62.2	60.5	60.4
무역수지	백만달러	16,599	21,149	13,380	20,299	29,161
수출액	백만달러	38,961	47,823	42,936	39,428	54,054
수입액		22,362	26,674	29,556	19,129	24,893
소비자물가상승률	%	2.6	2.5	4.9	2.7	3.0

주 : 1) 당해년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3) 당해년가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천안시	80,888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138,471	162,116
공주시	16,926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21,492	23,473
보령시	19,340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19,690	22,149
아산시	71,873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126,325	161,532
서산시	35,540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81,233	76,993
논산시	15,979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20,403	22,735
계룡시 ¹⁾	2,340	2,726	3,058	3,195	2,947	4,368	4,319	4,058
당진시	22,797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57,866	60,282
금산군	9,532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13,945	14,297
연기군	12,353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20,241	21,095
부여군	10,585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12,809	14,201
서천군	10,770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13,512	13,633
청양군	5,759	6,033	6,183	6,346	6,412	7,155	6,703	6,646
홍성군	11,331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15,471	16,855
예산군	10,480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15,387	16,082
태안군	12,140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11,876	15,161
충청남도	348,631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579,740	651,338

주 : 1) 2003년 이전 : 계룡출장소.

자료 :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충청남도.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0, %)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05=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09 04	116.5	-0.3	-7.3	-4.3	94.4	-0.6
05	116.9	0.3	-6.0	-4.2	94.4	-0.0
06	118.6	1.4	-2.9	-2.9	95.4	1.0
07	120.2	1.4	-0.1	-1.6	96.3	0.9
08	121.5	1.0	2.1	-0.3	97.0	0.6
09	123.1	1.4	4.8	1.4	97.9	0.9
10	124.6	1.2	7.2	3.0	98.7	0.8
11	125.9	1.0	9.0	4.5	99.4	0.6
12	126.6	0.6	9.8	5.3	99.5	0.2
2010 01	127.3	0.5	10.2	6.0	99.6	0.1
02	128.2	0.7	10.6	6.8	99.9	0.3
03	129.0	0.6	10.4	7.4	100.1	0.2
04	129.6	0.5	9.7	7.8	100.1	0.0
05	130.2	0.5	8.9	8.2	100.2	0.0
06	131.0	0.7	8.5	8.5	100.4	0.2
07	132.0	0.8	8.3	8.8	100.7	0.3
08	132.8	0.6	7.9	8.7	100.8	0.1
09	133.3	0.4	7.3	8.2	100.7	-0.0
10	133.3	0.0	6.0	7.3	100.3	-0.5
11	133.4	0.0	4.9	6.4	99.8	-0.4
12	134.3	0.7	5.3	6.2	100.0	0.2
2011 01	136.1	1.4	7.0	6.8	100.9	0.9
02	137.0	0.6	7.2	6.7	101.1	0.2
03	137.1	0.1	6.3	6.1	100.8	-0.4
04	137.2	0.0	5.3	5.6	100.3	-0.4
05	138.0	0.6	5.6	5.7	100.5	0.1
06	139.1	0.8	6.2	6.0	100.8	0.3
07	139.5	0.3	5.8	5.8	100.7	-0.1
08	139.7	0.1	5.2	5.3	100.4	-0.3
09	140.3	0.4	5.2	5.2	100.3	-0.0
10	141.0	0.5	5.4	5.3	100.4	0.1
11	141.6	0.4	5.3	5.2	100.4	-0.0
12	142.0	0.3	4.9	5.0	100.2	-0.2
2012 01	142.5	0.4	4.7	4.9	100.1	-0.1
02	143.1	0.4	4.7	4.9	100.1	0.0
03	143.0	-0.1	3.8	4.3	99.6	-0.5
04	143.7	0.5	4.2	4.4	99.7	0.1

자료 : 2012년 4월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12.6.

시장경기동향

(기준지수=100)

구 분	업황		매출		자금사정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2009	68,0	79,1	60,5	78,0	63,6	77,6
2010	70,3	94,4	68,4	94,4	69,7	87,5
2011	65,6	94,4	63,1	94,8	67,9	91,0
2011 1/4	54,8	91,9	53,6	90,7	64,3	90,5
2/4	71,8	95,7	67,6	100,0	69,6	93,5
3/4	71,4	95,8	63,4	94,2	68,5	91,0
4/4	64,3	94,2	67,8	94,2	69,1	89,2
2012 1/4	48,2	87,2	51,8	85,1	49,8	81,9
2010 05	69,0	94,0	58,3	96,1	70,2	87,2
06	59,5	78,8	57,1	75,0	59,5	78,9
07	66,7	73,8	60,7	76,2	70,0	82,9
08	77,4	85,0	75,0	86,5	73,8	82,5
09	97,6	125,6	103,6	125,6	86,9	102,4
10	66,7	114,3	67,9	121,3	69,0	103,8
11	94,0	98,8	96,4	100,0	85,7	95,2
12	58,3	73,8	57,1	67,5	57,1	80,8
2011 01	39,3	79,3	36,9	86,3	53,6	79,8
02	53,6	81,0	48,8	76,2	66,7	89,3
03	71,4	115,5	75,0	109,5	72,6	102,4
04	84,6	109,5	77,2	120,2	70,3	100,0
05	70,7	100,9	67,3	92,2	70,7	93,1
06	60,1	76,7	58,3	87,6	67,7	87,3
07	63,1	88,8	46,7	88,0	60,6	84,8
08	65,6	96,7	58,1	86,5	66,9	92,4
09	85,5	101,9	85,3	108,2	77,9	95,9
10	69,7	102,2	71,2	104,9	72,8	91,7
11	63,5	93,2	65,5	91,9	65,0	86,3
12	59,7	87,3	66,6	85,7	69,5	89,5
2012 01	54,2	97,8	62,9	97,7	54,4	93,1
02	43,3	61,9	43,8	51,9	46,0	60,9
03	47,0	101,8	48,7	105,7	49,1	91,7
04	67,4	84,3	64,3	97,5	56,7	78,7
05	79,6	83,3	76,4	99,8	68,5	71,5
06	-	73,2	-	76,1	-	75,0

자료 : 월간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 경상판매액)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09	1,000,673	8.0	—	716,401	8.5	—
2010	1,095,097	9.4	—	796,956	11.2	—
2011	1,450,812	32.5	—	918,307	15.2	—
2011 1/4	355,080	31.5	21.1	225,657	15.2	15.9
2/4	350,384	37.7	-1.3	222,694	18.4	-1.3
3/4	366,540	32.1	4.6	246,878	13.0	10.9
4/4	378,808	29.2	3.3	223,078	14.6	-9.6
2012 1/4	380,597	7.2	0.5	250,437	11.0	12.3
2010 04	81,181	3.9	-7.3	58,341	6.4	-6.3
05	91,106	6.1	12.2	66,504	8.2	14.0
06	82,218	6.7	-9.8	63,271	12.6	-4.9
07	91,460	12.2	11.2	72,044	16.3	13.9
08	87,203	6.4	-4.7	69,803	10.4	-3.1
09	98,800	16.8	13.3	76,561	27.6	9.7
10	87,095	-0.8	-11.8	61,530	4.4	-19.6
11	81,277	-4.9	-6.7	61,200	6.8	-0.5
12	124,757	33.7	53.5	71,890	11.9	17.5
2011 01	133,939	50.7	7.4	85,523	35.6	19.0
02	108,755	16.3	-18.8	69,975	-0.7	-18.2
03	112,386	28.3	3.3	70,159	12.7	0.3
04	111,521	37.4	-0.8	69,653	19.4	-0.7
05	121,238	33.1	8.7	78,018	17.3	12.0
06	117,625	43.1	-3.0	75,023	18.6	-3.8
07	124,762	36.4	6.1	84,338	17.1	12.4
08	114,166	30.9	-8.5	79,742	14.2	-5.4
09	127,612	29.2	11.8	82,798	8.1	3.8
10	124,339	42.8	-2.6	72,739	18.2	-12.1
11	114,856	41.3	-7.6	68,295	11.6	-6.1
12	139,613	11.9	21.6	82,044	14.1	20.1
2012 01	136,752	2.1	-2.0	90,781	6.1	10.6
02	116,618	7.2	-14.7	76,802	9.8	-15.4
03	124,630	10.9	6.9	82,257	14.4	4.5
04	116,482	4.4	-6.5	72,898	4.7	-9.2

자료 : 대형소매점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총 등록대수			차종별 등록대수			
	등록대수	전년동월차	전월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
2009 05	774,965	24,922	3,076	533,905	50,693	187,921	2,446
06	778,867	26,671	3,902	537,455	50,737	188,220	2,455
07	781,641	26,444	2,774	540,068	50,703	188,400	2,470
08	783,277	27,063	1,636	541,673	50,630	188,502	2,472
09	786,508	29,221	3,231	544,551	50,713	188,738	2,506
10	789,874	30,034	3,366	547,552	50,727	189,075	2,520
11	793,405	31,776	3,531	550,759	50,697	189,431	2,518
12	796,918	34,631	3,513	554,070	50,654	189,671	2,523
2010 01	799,644	34,175	2,726	556,506	50,627	189,979	2,532
02	802,175	34,944	2,531	558,906	50,573	190,154	2,542
03	805,400	36,195	3,225	561,742	50,576	190,533	2,549
04	809,436	37,547	4,036	565,070	50,575	191,237	2,554
05	812,325	37,360	2,889	567,579	50,577	191,606	2,563
06	815,377	36,510	3,052	570,488	50,479	191,838	2,572
07	819,864	38,223	4,487	574,616	50,498	192,165	2,585
08	822,465	39,188	2,601	576,924	50,478	192,472	2,591
09	826,121	39,613	3,656	580,147	50,490	192,878	2,606
10	829,848	39,974	3,727	583,435	50,494	193,296	2,623
11	833,491	40,086	3,643	586,724	50,473	193,666	2,628
12	834,391	37,473	900	587,662	50,401	193,685	2,643
2011 01	839,513	39,869	5,122	592,102	50,447	194,284	2,680
02	842,051	39,876	2,538	594,418	50,393	194,546	2,694
03	845,308	39,908	3,257	597,321	50,416	194,869	2,702
04	848,873	39,437	3,565	600,551	50,292	195,308	2,722
05	853,037	40,712	4,164	604,388	50,310	195,599	2,740
06	855,987	40,610	2,950	607,137	50,243	195,870	2,737
07	859,237	39,373	3,250	610,184	50,211	196,091	2,751
08	860,844	38,379	1,607	611,828	50,087	196,139	2,790
09	863,512	37,391	2,668	614,423	49,980	196,305	2,804
10	866,051	36,203	2,539	616,701	49,905	196,607	2,838
11	868,047	34,556	1,996	618,572	49,885	196,748	2,842
12	868,688	34,297	641	619,438	49,639	196,747	2,864
2012 01	874,019	34,506	5,331	624,415	49,661	197,073	2,870
02	877,054	35,003	3,035	627,119	49,576	197,463	2,896
03	879,550	34,242	2,496	629,387	49,500	197,761	2,902
04	881,916	33,043	2,366	631,481	49,485	198,031	2,919
05	884,348	31,311	2,432	633,644	49,474	198,298	2,932

자료 : 시군별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09	97.1	2.7	96.7	2.0	81.6	5.7	97.2	2.8	96.6	2.3	97.1	2.7
2010	100.0	3.0	100.0	3.4	100.0	22.6	100.0	2.9	100.0	3.5	100.0	3.0
2011	104.1	4.1	104.6	4.6	106.1	6.1	104.0	4.0	104.2	4.2	104.4	4.4
2011 1/4	103.0	4.0	103.6	4.9	110.3	22.1	102.9	4.0	10.31	4.1	100.3	4.2
2/4	103.7	4.0	104.1	4.3	101.8	5.9	103.6	3.8	103.9	4.2	104.0	4.4
3/4	104.9	4.5	105.4	5.0	111.6	7.6	104.8	4.4	104.9	4.5	105.2	4.8
4/4	104.8	3.9	105.2	4.1	100.8	-8.3	104.7	3.8	104.9	4.0	105.3	4.3
2012 1/4	105.9	2.8	106.3	2.6	110.7	0.4	105.9	2.9	105.6	2.4	106.3	3.0
2010 05	99.8	2.9	100.0	3.4	97.2	10.9	99.9	2.8	99.8	3.7	99.6	2.6
06	99.6	2.6	99.6	2.9	92.6	12.6	99.7	2.5	99.7	3.7	99.5	2.5
07	99.9	2.5	99.8	2.6	93.7	13.1	100.0	2.4	99.9	3.2	99.9	2.5
08	100.3	2.7	100.3	2.9	101.6	20.2	100.3	2.6	100.3	3.3	100.4	2.7
09	100.9	3.2	101.2	3.7	115.8	35.4	101.0	3.2	101.0	3.9	100.8	3.1
10	101.1	3.7	101.5	4.4	116.6	37.4	101.1	3.5	101.1	4.2	101.2	3.8
11	100.6	3.0	100.5	3.3	106.7	31.2	100.6	2.9	100.6	3.3	100.7	3.1
12	101.1	3.2	101.2	3.6	106.4	26.8	101.1	3.1	101.0	3.4	101.1	3.4
2011 01	102.2	3.5	102.6	4.3	109.4	23	102.1	3.4	102.2	3.7	102.3	3.6
02	103.2	4.2	103.9	5.2	110.9	20.7	103.1	4.1	103.2	4.3	103.4	4.4
03	103.5	4.3	104.2	5.1	110.6	16.2	103.4	4.3	103.8	4.4	103.9	4.5
04	103.5	3.9	104.2	4.4	106.2	7.8	103.5	3.8	103.6	3.9	103.8	4.2
05	103.7	3.9	103.9	3.9	100.2	3.0	103.6	3.7	103.9	4.1	104.0	4.4
06	103.9	4.3	104.2	4.6	99.1	6.5	103.8	4.1	104.1	4.4	104.3	4.8
07	104.4	4.5	104.6	4.8	105.8	12.1	104.3	4.3	104.5	4.6	104.8	4.9
08	105.2	4.9	105.8	5.5	116.7	15.1	105.1	4.8	105.1	4.8	105.4	5.0
09	105.0	4.1	105.7	4.4	112.3	-3.5	104.9	3.9	105.0	4.0	105.3	4.5
10	104.7	3.6	105.2	3.6	103.5	-13.1	104.6	3.5	104.7	3.6	105.2	4.0
11	104.7	4.1	105.1	4.6	99.9	-6.8	104.6	4.0	104.9	4.3	105.2	4.5
12	105.0	3.9	105.4	4.2	99.0	-7.4	104.8	3.7	105.1	4.1	105.5	4.4
2012 01	105.5	3.2	105.9	3.2	106	-3.4	105.5	3.3	105.4	3.1	106.0	3.6
02	106.0	2.7	106.4	2.4	111.1	0.2	105.9	2.7	105.8	2.5	106.4	2.9
03	106.2	2.6	106.7	2.4	115.1	4.1	106.2	2.7	105.7	1.8	106.6	2.6
04	106.4	2.8	106.9	2.6	113.5	6.9	106.5	2.9	105.7	2.0	106.7	2.8
05	106.8	3.0	107.2	3.2	116.5	16.3	106.8	3.1	106.2	2.2	106.9	2.8

자료 : 충청지역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09	39,428	-8.2	-	19,129	-35.3	-	20,299
2010	54,054	37.1	-	24,893	30.1	-	29,161
2011	59,954	10.9	-	33,640	35.1	-	26,314
2011 1/4	13,825	18.0	-3.1	7,625	32.7	15.8	6,200
2/4	14,847	10.5	7.4	8,600	38.6	12.8	6,247
3/4	15,449	5.6	4.1	8,918	40.2	3.7	6,531
4/4	15,834	10.9	2.5	8,497	29.1	-4.7	7,337
2012 1/4	14,547	5.2	-8.1	8,689	14.0	2.3	5,858
2010 05	4,483	48.7	2.9	1,928	49.3	0.8	2,555
06	4,593	40.9	2.5	2,363	41.6	22.6	2,230
07	4,898	41.0	6.6	2,064	34.3	-12.7	2,834
08	4,935	38.6	0.8	2,071	25.2	0.3	2,864
09	4,800	19.7	-2.7	2,225	20.7	7.4	2,575
10	4,994	24.6	4.0	2,031	13.2	-8.7	2,963
11	4,660	19.3	-6.7	2,147	21.1	5.7	2,513
12	4,619	18.1	-0.9	2,405	20.8	12.0	2,214
2011 01	4,733	29.3	2.5	2,556	40.9	6.3	2,177
02	4,220	15.6	-10.8	2,234	18.2	-12.6	1,986
03	4,872	10.7	15.5	2,835	38.8	26.9	2,037
04	4,868	11.7	-0.1	2,688	40.2	-5.2	2,180
05	5,022	12.0	3.2	2,781	44.3	3.5	2,241
06	4,957	7.9	-1.3	3,131	32.5	12.6	1,826
07	5,089	3.9	2.7	2,826	36.9	-9.7	2,263
08	4,925	-0.2	-3.2	2,867	38.4	1.5	2,058
09	5,435	13.2	10.4	3,225	44.0	12.5	2,210
10	5,510	10.3	1.4	2,834	39.6	-12.1	2,676
11	4,996	7.2	-9.3	2,741	27.7	-3.3	2,255
12	5,328	15.4	6.6	2,922	21.6	6.6	2,406
2012 01	4,564	-3.6	-14.3	2,781	8.8	-4.8	1,783
02	4,826	14.4	5.7	3,002	38.8	11.5	1,724
03	5,140	5.5	6.5	2,804	-1.1	-9.6	2,336
04	4,743	-2.6	-7.7	2,971	10.6	6.0	1,772
05	5,081	1.2	7.1	3,117	12.1	4.9	1,964

자료 : 지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고용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2009	991	-0.5	585	406	62.4	-1.3	74.6	50.5
2010	1,003	1.2	591	412	62.2	-0.2	74.1	50.5
2011	1,025	2.2	609	416	62.4	0.2	75.0	50.1
2011 1/4	963	2.3	581	382	59.1	0.4	72.2	46.3
2/4	1,061	3.2	626	435	64.8	1.0	77.4	52.5
3/4	1,044	0.8	616	428	63.4	-0.7	75.7	51.4
4/4	1,031	2.3	612	419	62.2	0.1	74.6	50.0
2012 1/4	991	2.9	595	396	59.0	-0.1	71.5	46.8
2010 05	1,031	1.2	601	431	64.1	-0.2	75.5	52.9
06	1,037	0.0	598	439	64.3	-1.0	75.1	53.9
07	1,037	2.5	601	436	64.2	0.6	75.3	53.4
08	1,032	1.6	603	428	63.8	0.0	75.6	52.4
09	1,039	0.6	604	435	64.2	-0.6	75.6	53.1
10	1,033	-0.6	606	427	63.8	-1.4	75.7	52.1
11	1,020	2.2	602	419	62.9	0.4	75.1	51.0
12	968	3.1	579	389	59.5	0.8	72.1	47.3
2011 01	923	-0.9	558	365	56.7	-1.4	69.4	44.3
02	955	2.0	579	376	58.6	0.3	71.8	45.6
03	1,012	5.8	608	405	62.0	2.4	75.3	49.0
04	1,042	2.7	621	421	63.7	0.6	76.9	50.9
05	1,064	3.2	628	436	65.0	0.9	77.6	52.7
06	1,076	3.7	629	447	65.6	1.3	77.6	53.9
07	1,051	1.4	619	432	63.9	-0.3	76.2	52.0
08	1,043	1.1	619	424	63.3	-0.5	75.9	50.9
09	1,038	0.0	611	427	62.9	-1.3	74.9	51.2
10	1,066	3.1	624	442	64.5	0.7	76.3	52.8
11	1,041	2.0	615	425	62.8	-0.1	75.1	50.8
12	985	1.8	596	389	59.3	-0.2	72.4	46.4
2011 01	959	3.8	572	386	57.4	0.7	69.1	45.8
02	975	2.1	592	383	58.0	-0.6	71.1	45.2
03	1,041	2.8	622	419	61.7	-0.3	74.2	49.3
04	1,097	5.3	648	448	64.6	0.9	76.9	52.5
05	1,113	4.6	654	459	65.3	0.3	77.1	53.6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연령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취업자		청장년층					고령층		
	합계	전년 동월기비	15-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2009	961	-1.2	7	131	212	253	112	74	61	112
2010	974	1.3	9	140	215	252	115	84	58	102
2011	1001	2.8	10	139	215	257	119	89	63	109
2011 1/4	935	3.1	12	141	213	245	111	81	56	77
2/4	1,040	3.6	9	142	216	260	123	91	68	131
3/4	1,021	1.4	11	136	214	260	120	92	67	122
4/4	1,009	2.8	8	136	219	263	120	93	63	107
2012 1/4	961	2.8	10	140	213	251	120	89	56	83
2010 05	1,006	2.1	9	138	217	255	118	89	64	118
06	1,015	1.4	8	139	221	257	118	89	62	121
07	1,007	2.8	12	144	218	251	117	87	59	119
08	1,006	1.7	10	144	214	252	116	87	61	124
09	1,006	0.0	11	144	213	253	117	86	61	122
10	1,005	-0.7	8	143	213	254	120	89	59	119
11	995	2.4	8	143	214	253	119	88	60	111
12	942	3.3	8	144	214	248	114	84	54	76
2011 01	899	0.9	11	143	212	242	107	80	47	56
02	924	3.1	12	142	213	243	110	79	56	68
03	982	5.3	13	137	213	249	116	85	63	107
04	1,017	2.8	10	140	213	257	118	91	67	122
05	1,046	3.9	8	143	216	261	124	91	70	135
06	1,057	4.1	9	142	220	264	127	91	69	136
07	1,027	2.0	12	141	217	256	120	90	66	124
08	1,019	1.3	13	134	209	261	122	92	67	122
09	1,016	1.0	7	133	216	261	119	93	68	119
10	1,038	3.3	7	135	218	267	123	93	69	128
11	1,023	2.8	8	137	222	264	122	92	64	115
12	965	2.4	10	136	216	259	116	92	56	80
2011 01	930	3.5	12	133	210	251	120	85	51	68
02	938	1.5	10	140	213	247	116	85	56	72
03	1,015	3.4	8	147	216	257	124	95	60	109
04	1,069	5.2	14	145	222	263	125	100	62	139
05	1,094	4.6	12	150	223	268	126	99	66	150

자료 : 행정구역별 연령별취업자,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	전년 동월(기)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운수 통신금융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2009	961	-1.2	181	164	93	56	188	179
2010	974	1.3	164	185	99	55	177	296
2011	1001	2.8	163	204	97	64	177	297
2011 1/4	935	3.1	119	196	103	56	171	290
2/4	1,040	3.6	198	200	99	64	175	305
3/4	1,021	1.4	182	205	93	66	177	299
4/4	1,009	2.8	152	215	93	71	185	293
2012 1/4	961	2.8	99	208	98	65	191	300
2010 05	1,006	2.1	186	181	100	57	181	301
06	1,015	1.4	195	185	104	51	176	304
07	1,007	2.8	189	190	99	50	180	301
08	1,006	1.7	194	187	100	52	172	303
09	1,006	0.0	195	182	103	50	168	308
10	1,005	-0.7	197	190	99	56	166	297
11	995	2.4	176	191	100	56	170	302
12	942	3.3	115	199	102	55	173	297
2011 01	899	0.9	90	196	103	52	170	289
02	924	3.1	108	197	102	56	172	289
03	982	5.3	159	196	103	60	172	293
04	1,017	2.8	182	201	98	62	172	301
05	1,046	3.9	206	201	99	63	173	305
06	1,057	4.1	205	200	99	67	179	308
07	1,027	2.0	185	201	94	63	180	305
08	1,019	1.3	181	205	92	66	180	295
09	1,016	1.0	180	207	94	67	171	297
10	1,038	3.3	189	213	92	70	180	295
11	1,023	2.8	162	217	93	70	187	294
12	965	2.4	105	214	95	72	189	290
2011 01	930	3.5	80	211	97	67	190	287
02	938	1.5	82	208	98	63	191	296
03	1,015	3.4	136	205	98	67	191	319
04	1,069	5.2	176	203	96	70	192	332
05	1,094	4.6	188	-8.9	99	70	199	330

자료 : 행정구역별 산업별취업자, 통계청.

실업률, 실업자

(단위 : 천명, %, %p)

구분	실업률				실업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2009	3.0	0.6	3.5	2.3	29	25.1	20	9
2010	2.9	-0.1	3.1	2.5	29	-2.4	18	10
2011	2.3	-0.6	2.4	2.2	24	-17.8	15	9
2011 1/4	3.0	-0.7	2.6	3.5	29	-18.8	15	13
2/4	1.9	-0.5	1.9	2	21	-14.9	12	9
3/4	2.2	-0.6	2.5	1.9	23	-20.1	15	8
4/4	2.1	-0.5	2.5	1.6	22	-16.4	15	7
2012 1/4	3.0	0.0	3.0	3.1	30	5.6	18	12
2010 05	2.5	-0.8	3.2	1.3	25	-25.1	20	6
06	2.1	-1.4	2.5	1.6	22	-39.7	15	7
07	2.9	-0.3	2.9	2.8	30	-7.8	18	12
08	2.4	-0.2	2.5	2.3	25	-4.2	15	10
09	3.2	0.6	3.4	2.9	33	22.3	20	13
10	2.7	0.0	3.1	2.2	28	1.1	19	9
11	2.4	-0.3	2.6	2.3	25	-6.4	15	10
12	2.6	-0.3	2.5	2.8	26	-6.6	15	11
2011 01	2.6	-1.8	2.6	2.6	24	-41.3	15	9
02	3.3	-1.0	2.4	4.6	31	-21.8	14	17
03	3.0	0.5	2.8	3.2	30	24.5	17	13
04	2.4	-0.1	2.4	2.4	25	-0.8	15	10
05	1.7	-0.8	1.7	1.7	18	-28.1	11	7
06	1.7	-0.4	1.6	1.8	19	-15.5	10	8
07	2.3	-0.6	2.5	1.9	24	-18.9	16	8
08	2.3	-0.1	2.6	1.8	24	-6.0	16	8
09	2.2	-1.0	2.3	2.0	22	-31.9	14	8
10	2.6	-0.1	3.4	1.4	28	-1.8	22	6
11	1.7	-0.7	1.7	1.7	17	-30.5	10	7
12	2.1	-0.5	2.4	1.6	21	-19.5	14	6
2011 01	2.9	0.3	3.1	2.6	28	16.5	18	10
02	3.8	0.5	4.0	3.5	37	17.6	23	13
03	2.5	-0.5	2.0	3.1	26	-15.0	13	13
04	2.5	0.1	2.3	2.7	27	8.3	15	12
05	1.8	0.1	1.5	2.2	20	8.8	10	10

자료 : 행정구역별 산업별취업자, 통계청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09	138,491	265,039	403,530	220,375	146,671	367,046
2010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171,209	296,369	467,578	242,580	165,180	407,760
2009 04	137,382	253,042	390,424	212,577	137,261	349,838
05	137,417	253,803	391,220	213,778	137,471	351,249
06	137,192	256,781	393,973	215,701	138,371	354,072
07	134,342	255,354	389,696	215,146	138,865	354,011
08	138,258	254,180	392,438	215,994	140,467	356,461
09	141,543	256,988	398,531	217,251	142,006	359,257
10	140,879	258,660	399,537	219,187	142,904	362,091
11	140,087	260,633	400,720	221,655	144,159	365,814
12	138,491	265,093	403,584	220,375	146,671	367,046
2010 01	136,656	265,391	402,047	221,293	145,453	366,746
02	143,744	265,790	409,534	221,549	145,823	367,372
03	139,853	268,910	408,763	223,456	146,381	369,837
04	143,809	270,034	413,843	224,353	147,201	371,554
05	145,550	271,105	416,655	224,457	147,920	372,377
06	144,072	274,403	418,475	223,655	148,605	372,260
07	143,542	274,235	417,777	224,489	149,021	373,510
08	145,929	273,364	419,293	225,242	150,623	375,865
09	146,935	275,753	422,688	226,105	151,381	377,486
10	148,884	278,370	427,254	228,808	152,127	380,935
11	148,895	280,774	429,669	229,868	152,573	382,441
12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01	149,945	285,728	435,673	228,042	153,447	381,489
02	152,336	283,236	435,572	227,905	153,640	381,545
03	153,838	288,193	442,031	228,882	153,587	382,469
04	154,761	287,199	441,960	229,865	154,356	384,221
05	158,104	287,429	445,533	230,721	155,414	386,135
06	156,866	289,586	446,452	232,444	156,256	388,700
07	157,311	289,258	446,569	233,679	156,898	390,577
08	161,351	289,776	451,127	234,883	158,834	393,717
09	161,652	290,290	451,942	235,985	159,761	395,746
10	162,668	291,155	453,823	241,851	161,415	403,266
11	164,574	294,210	458,784	243,255	162,963	406,218
12	171,209	296,369	467,578	242,580	165,180	407,760
2012 01	168,927	296,961	465,888	245,495	164,497	409,992
02	170,977	296,845	467,822	246,535	164,433	410,968
03	177,719	299,136	476,855	247,713	164,775	412,488
04	171,814	300,045	471,859	250,943	165,888	416,831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대전총남본부.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09	0.32	0.47	0.28	0.27	0.36	0.01
2010	0.17	0.20	0.33	0.21	0.05	0.05
2011	0.29	0.42	0.24	0.14	0.64	0.00
2011 1/4	0.41	0.55	0.69	0.09	0.16	0.00
2/4	0.11	0.21	0.05	0.02	0.04	0.00
3/4	0.22	0.25	0.12	0.12	1.44	0.01
4/4	0.40	0.67	0.09	0.34	0.91	0.00
2012 1/4	0.15	0.26	0.02	0.20	0.00	0.01
2010 04	0.11	0.04	0.40	0.17	0.01	0.10
05	0.19	0.25	0.26	0.25	0.10	0.05
06	0.24	0.30	0.38	0.20	0.00	0.05
07	0.30	0.39	0.71	0.00	0.36	0.01
08	0.22	0.25	0.65	0.00	0.00	0.05
09	0.09	0.10	0.27	0.07	0.00	0.02
10	0.07	0.02	0.01	0.74	0.02	0.04
11	0.22	0.29	0.25	0.25	0.08	0.08
12	0.13	0.12	0.27	0.23	0.01	0.05
2011 01	0.20	0.16	0.73	0.14	0.11	0.00
02	0.17	0.09	0.92	0.08	0.00	0.01
03	0.87	1.39	0.43	0.05	0.36	0.00
04	0.10	0.17	0.10	0.00	0.00	0.00
05	0.12	0.21	0.04	0.06	0.11	0.00
06	0.12	0.25	0.02	0.00	0.00	0.00
07	0.19	0.34	0.00	0.22	0.00	0.00
08	0.18	0.27	0.06	0.15	0.65	0.02
09	0.28	0.14	0.31	0.00	3.67	0.01
10	0.39	0.61	0.06	0.13	1.93	0.00
11	0.74	1.33	0.18	0.41	0.60	0.00
12	0.08	0.07	0.04	0.48	0.21	0.00
2012 01	0.18	0.21	0.00	0.48	0.00	0.00
02	0.15	0.23	0.00	0.12	0.00	0.02
03	0.13	0.34	0.05	0.00	0.00	0.00
04	0.20	0.20	0.00	-	0.14	-

자료 : 대전충남지역어음부도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 %)

구분	건축허가(㎡)		건축착공(㎡)		토지거래(천㎡)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09	7,203,977	-15.6	5,302,140	-7.12	270,249	35.1	189,970	-0.1
2010	6,636,749	-7.9	6,347,763	19.7	225,210	-16.7	141,946	-25.3
2011	9,980,356	50.4	8,895,818	40.1	192,976	-14.3	88,210	-37.9
2011 1/4	1,428,130	2.1	1,314,241	-8.4	44,502	-2.4	25,309	-36.8
2/4	1,987,829	-5.2	2,080,921	9.3	58,090	16.8	22,308	-41.5
3/4	2,920,380	101.8	1,621,229	26.0	40,661	-1.9	19,828	-42.8
4/4	3,644,017	115.2	3,879,427	122.6	49,723	-32.4	20,765	-28.7
2012 1/4	2,438,824	70.8	2,355,123	79.2	45,709	2.7	20,407	-19.4
2010 05	591,696	21.4	609,255	16.6	16,252	-30.5	12,621	-2.7
06	866,573	11.0	751,798	72.4	19,042	-25.8	12,513	-0.9
07	580,512	55.6	461,472	39.2	16,773	-26.7	12,222	-2.3
08	487,208	-42.4	432,427	-5.8	14,787	-21.5	11,593	-5.1
09	379,786	-28.2	393,149	3.2	9,891	-44.4	10,851	-6.4
10	400,493	-8.9	464,780	-3.0	19,172	23.3	10,285	-5.2
11	812,945	64.2	666,098	34.5	21,637	18.6	9,824	-4.5
12	480,231	-28.6	591,027	24.4	32,469	38.39	9,020	-8.2
2011 01	414,632	3.7	255,721	-2.1	14,265	-3.5	8,750	-37.3
02	403,350	-12.7	358,003	-12.7	12,164	-28.12	8,477	-35.7
03	610,148	13.4	700,517	-0.2	18,073	-11.28	8,082	-37.4
04	593,974	-6.9	724,923	33.7	20,501	-11.29	7,620	-41.3
05	723,947	22.4	700,162	14.9	18,041	11.01	7,459	-40.9
06	669,908	-22.7	655,836	-12.8	19,548	2.6	7,229	-42.2
07	522,989	-9.9	427,285	-7.4	15,056	-10.2	6,903	-43.5
08	1,504,930	208.9	456,491	5.6	13,713	-7.3	6,546	-43.5
09	892,461	135.0	737,453	87.6	11,892	20.2	6,379	-41.2
10	1,518,020	245.2	1,290,749	177.7	11,696	-38.9	5,903	-42.6
11	1,212,422	49.1	1,827,431	174.3	15,292	-29.3	7,391	-24.8
12	913,575	90.2	761,247	28.8	22,735	-30.0	7,471	-17.2
2012 01	558,630	34.7	507,442	98.4	12,571	-12.3	7,159	-18.2
02	714,587	77.2	1,023,484	185.9	14,206	18.9	6,746	-20.4
03	1,165,607	91.0	824,197	17.7	18,932	14.7	6,502	19.5
04	816,592	37.5	1,083,638	49.5	14,986	-15.7	6,180	-18.9
05	827,663	14.3	595,332	-15.0	-	-	-	-

자료 :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미분양주택현황, 국토해양부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2011.6=100.0)

구분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09 05	95.5	0.6	-0.1	92.5	99.5	97.4	89.3	1.8	0.0	86.1	92.2	93.3
06	95.5	0.2	0.0	92.3	99.5	97.4	89.2	1.1	-0.1	86.0	92.0	93.3
07	95.4	-0.1	0.0	92.3	99.5	97.4	89.4	1.0	0.2	86.1	92.3	93.4
08	95.4	-0.3	0.0	92.4	99.1	97.4	89.4	0.5	0.1	86.2	92.3	93.4
09	95.7	-0.8	0.3	92.7	99.4	98.1	89.9	0.1	0.6	86.4	93.0	94.0
10	96.2	-0.5	0.5	93.0	100.0	98.3	90.2	0.0	0.3	86.7	92.9	96.3
11	96.3	-0.3	0.1	93.2	100.0	98.3	90.4	0.0	0.3	87.0	93.1	96.3
12	96.3	0.0	0.0	93.3	100.0	98.3	90.5	0.3	0.1	87.2	93.1	96.3
2010 01	96.3	0.3	0.0	93.4	100.0	98.3	90.6	0.8	0.1	87.3	93.2	96.3
02	96.4	0.6	0.1	93.6	100.0	98.3	90.8	1.4	0.2	87.6	93.2	96.3
03	96.6	0.9	0.1	93.8	100.0	98.3	91.2	2.0	0.5	88.1	93.8	96.4
04	96.4	0.8	-0.1	93.9	99.5	98.7	91.7	2.8	0.5	88.3	94.6	96.6
05	96.5	1.0	0.0	93.9	99.5	99.0	92.5	3.6	0.9	88.7	95.9	97.2
06	96.5	1.1	0.0	94.0	99.5	99.2	92.5	3.7	0.0	89.1	95.5	96.9
07	96.5	1.1	0.0	94.0	99.5	99.2	92.6	3.6	0.1	89.6	95.5	96.9
08	96.3	1.0	-0.2	94.1	98.9	99.2	92.8	3.7	0.2	90.1	95.5	97.0
09	96.4	0.7	0.0	94.2	98.9	99.4	93.6	4.1	0.9	90.6	97.0	97.6
10	96.4	0.3	0.0	94.3	98.9	99.4	94.4	4.6	0.8	91.1	98.2	98.6
11	96.6	0.3	0.2	94.6	98.9	100.0	94.7	4.7	0.4	92.0	97.9	99.1
12	96.7	0.4	0.1	94.8	98.9	100.0	95.1	5.1	0.4	92.7	97.9	99.1
2011 01	96.8	0.5	0.1	95.0	98.9	100.0	95.5	5.4	0.4	93.4	98.0	99.1
02	97.1	0.7	0.3	95.5	98.9	100.0	96.2	5.9	0.7	94.3	98.4	99.2
03	97.8	1.3	0.8	96.4	99.6	100.2	97.3	6.6	1.2	95.8	99.1	99.5
04	98.8	2.5	1.0	97.8	100.1	100.3	98.7	7.6	1.4	97.7	100.1	99.8
05	99.5	3.2	0.7	99.1	100.1	100.5	99.5	7.6	0.8	99.1	100.1	99.9
06	100.0	3.6	0.5	100.0	100.0	100.0	100.0	8.1	0.5	100.0	100.0	100.0
07	100.7	4.4	0.7	100.9	100.5	100.2	101.0	9.1	1.0	101.0	101.0	100.4
08	101.6	5.5	0.8	102.2	100.9	100.2	102.3	10.3	1.3	102.9	101.5	100.5
09	102.5	6.4	0.9	103.4	101.3	101.4	103.5	10.6	1.2	104.5	102.1	102.7
10	103.4	7.2	0.9	104.8	101.3	101.7	104.6	10.9	1.1	106.3	102.1	102.7
11	104.4	8.1	1.0	106.5	101.3	101.7	106.2	12.1	1.5	108.9	102.1	102.7
12	104.8	8.4	0.4	107.2	101.3	101.7	106.8	12.3	0.6	109.9	102.1	102.7
2012 01	105.3	8.8	0.5	108.0	101.1	101.7	107.5	12.7	0.6	111.0	102.2	102.7
02	105.7	8.9	0.4	108.6	101.1	101.9	108.1	12.5	0.6	111.9	102.2	102.7
03	106.4	8.8	0.6	109.6	101.2	102.2	109.0	12.0	0.8	113.1	102.2	103.3
04	107.5	8.8	1.0	110.3	101.2	102.5	110.3	11.8	1.2	115.2	102.2	103.6
05	108.0	8.5	0.5	112.3	101.1	102.7	111.0	11.5	0.6	116.3	102.1	1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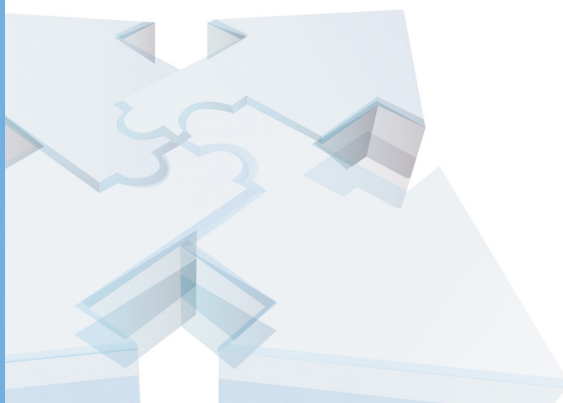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청년 CEO 500 프로젝트」 시행

- **신청대상** : 만18세~만39세의 예비창업희망자(1972. 1. 1 ~ 1993. 12. 31)
- **신청인원** : ○○명 내외
- **신청분야 및 업종**

분 야	업 종
기술창업	기계, 재료, 전자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공예 등
지식서비스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등

- **지원내용** : 창업기본교육(30H)실시, 창업공간지원, 맞춤형 창업지원, 재정지원
- **신청방법** : 수시접수
-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041-539-4549)으로 문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자 모집

- **모집기간** : 2012. 6. 1(금) ~ 모집시까지
- **모집규모** : 10개 기업(1인실)
- **대상업종** : 372개 1인 창조기업 영위업종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충남도내 거주자로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미만의 1인 창조기업
- **지원사항**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연장가능(최장 1년이내)
 - 지원내용 : 비즈니스공간제공, 경영지원서비스,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1인 창조기업 네트워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042-539-4548)로 문의

2012년도 투자연계 멘토링 초기기업 기술개발사업 시행

-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법인)
- **지원내용** :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의 투자참여와 더불어 1:1 멘토링을 조건으로 기술개발비 지원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년, 최대 2억원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
- **신청기간** : 2012. 6. 12(화) ~ 7. 31(화) 18:00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1661-1357(내선2))으로 문의

중소기업근로자 대상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지원

- **지원대상** :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그 가족 참여가능
 - **신청기간** : 연중수시(예산 소진 시 까지) ※ 참가비용 무료
 - **지원분야**
 - 근로자 개인상담 :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중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넷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자
 - 기업상담 :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기업
 - **상담분야** : 직무스트레스, 조직내 갈등, 업무과다, 건강관리, 정서/성격, 자녀 및 부부상담, 경력상담, 재무상담, 법률상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

특성화고 및 청년취업 대상 채용설명회 및 채용 박람회 개최

- **일 시** : '12. 6. 28(목) 13:00 ~ 18:00
 - **장 소**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0층 대강당
 - **참여대상**
 - 구직자 : 충남도내 특성화고생 및 전문대졸업(예정)자, 일반구직자
 - 중소기업(20개사) : 특성화고(전문계고) 채용 예정기업, 조기채용이 가능하고 매출액이 높은 기업 위주로 선정
- ※ 채용설명회는 본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 중 희망기업 선정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042-564-3858)으로 문의

국제 지식재산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5차)

- **신청기간** : 2012. 6. 7(목) ~ 29(금)
 - **지원내용** : 외국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 **업체선정** : 서류(1차) 및 발표심사(2차)를 통해 지원결정
 - **조건내용** :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72) IP분쟁지원팀 으로 문의

유통업구조개선 자금지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 * 지원제외대상 :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신청기간** : 2012. 4. 2 ~ 2012. 12. 20(자금규모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20억원
 - **지원사업** : 점포의 내부구조, 진열대, 외부간판 등을 현대구조로 개선하는 사업
 - **지원한도 및 융자조건**
 - 지원한도 : 점포당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3.0%(변동금리)
 -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대출실행 : 지원결정 통보일자부터 3개월 이내 대출완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042-220-3212)로 문의

2012년도 취업하고 싶은 500대 강소기업 선정계획

- **지원분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신청기간** : 2012. 4. 16(월) ~ 5. 31(금)
 - **선정기업 수** : 5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특성화고 및 국립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등 취업희망자 대상 현장 연수 및 1:1 취업매칭, 기업홍보 등 지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회(042-476-7722)로 문의

2012 아프리카 시장개척단 모집

- **파견기간** : 2012. 8. 26(일) ~ 9. 6(목), 9박 12일
 - **파견지역** : 케냐(나이로비), 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 나이지리아(라고스)
 - **파견대상 및 규모** : 대전충남소재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 **참가품목** : 종합품목
 - **지원내용** : 현지 바이어 알선비용(KOTRA 현지센터에서 바이어 알선 수행),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현지차량 임차비 *별도의 항공료 지원 없음
 - **신청기간** : 2012. 4. 27(금)까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042-866-0122)로 문의

2012년 대학·연구기관 보육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대기업이 공동투자한 창업법인(5~6개내외)
 - **사업화 유망기술 공모 신청자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공공연구기관*, 제10항의 공공연구첨단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6항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50%이내, 최대 2년간 10억원까지 지원(연 5억 한도)
 - * 총사업비 중 제품화 R&D 비용이 70% 이상일 것
 - **지원예산** : 44억원
 - **신청기간** : 2012. 4. 2 ~ 7. 2 * 자금이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4/7)로 문의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2010. 10월호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미·중간 환율이슈와 글로벌 불균형

공주대학교 남수중

2010. 11월호

전자자동차의 핵심부품 2차전지

한서대학교 이영훈

세종시 부동산시장 전망

목원대학교 정재호 · 충남발전연구원 조수희

2010. 12월호

우리 경제의 최근 동향과 2011년도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김현욱

2010년 충남의 주요 경제이슈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 김양중 · 송두범 · 김경태

2011. 1월호

2011년 충청남도 경제도정 운영방향

충청남도 권희태

충남 일자리 공시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2011. 2월호

2010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1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김윤아

충남의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3월호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전개와 성공전략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권오창

국제 유가의 상승이 주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1. 4월호

일본 지진 파해로 인한 Display산업의 영향 분석

디스플레이서치코리아 정윤성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논의

충남발전연구원 이재현

2011. 5월호

충남 전략산업의 성장에 대한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홍성호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과 향후 논의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1. 6월호

FTA의 영향과 대응방향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충남의 항만 물동량 현황과 발전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7월호

SNS의 성장 잠재력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역할

KT경제경영연구소 송민정

충청광역경제권 협력의 필요성 및 대안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2011. 8월호

충남 녹색성장 실태와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2011. 9월호

지속가능경영의 이해와 효과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충남의 지식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10월호

충청광역경제권 지역산업의 현황 및 산업구조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인삼엑스포 이후를 생각한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하광학

2011. 11월호

충남 사업체고용동향조사 분석 및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 백운성 · 김양중 · 임형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1. 12월호

2012년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 전망

목원대학교 부동산연구센터 조수희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2. 1월호

2012년 충청남도 경제정책 운영방향

충청남도 남궁영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 임병철

2012. 2월호

2012년 충남 디스플레이산업 전망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황정현

2011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2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김윤아

2012. 3월호

경기종합지수의 개념과 지역경기종합지수의 필요성

전북발전연구원 최성환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제정 추진에 관한 일고찰

충남발전연구원 이민정

2012. 4월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평가체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충남지역 에너지소비구조 특성

충남발전연구원 이종윤

2012. 5월호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와 자치단체의 역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

충남지역의 소득불평등 측정 및 추이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2012. 6월호

유로존 재정위기 항방과 충남경제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영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환경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충남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난 농업회사법인 (주)한국도라지

재배에서 가공, 유통까지 ~ Onestop System!!

■ 도라지 재배굴 형성장치 (등록번호 10-0808134)



■ 도라지 재배방법 (등록번호 10-0910254)



■ 도라지 박피장치 (등록번호 10-0801897)



■ 도라지 세절기 (등록번호 10-0832903)



농산업의 發展과 革新을 위해 달려온
18년 노력의 결정체!!



고농축 도라지청

전통생약추출의 명작
엑상차 · 도라지청



도라지 액상차

농촌진흥청 FTA대응전략개발제품



도라지 꿀



전통발효 식품의 명작
신초들의 숨쉬는 정성이 담긴



도라지 장아찌



신개념 도라지 생청



도라지 조청



도라지 환



도라지 조청 요리당 · 물엿 · 쌀엿



메디푸드
한국도라지
KOREADORAJI
www.한국도라지.com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장곡길 116-12(죽전리 341-1)
TEL : (041) 642-2706 FAX : (041) 642-2709



위 기업은 충청남도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여 광고를 지원합니다.